朝鮮日報 夕刊 十四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日本側調査員을 十九路軍上陸拒絶
一觸即發의 日中關係
李宗仁白宗禧等十九路軍支持

【廣東十三日發同盟】粵桂妥協은 가의 成立되엇슴에도 不拘하고 十九路軍對中央의 關係는 益益 紛糾하야 日本軍艦의 北海派遣에 關聯하야 그 推移는 極히 重大해되고잇는 이때에 蔡廷楷氏는 十二日 左의 妥協條件을 蔣介石氏에게 提出하엿다고 傳聞되다

一、十九路軍의 完全한 再編成을 承認할것

二、廣東南路海南島를 同軍의 駐在地가 되게할것

三、軍의 再編成費用으로 五百萬元을 支出할것

그런데 十九路軍幹部는 中央이 右要求에 應치안는 境遇에는 事件을 擴大하야 北海를 往年의 上海가 되게할것이라고 蔣介石氏를 威嚇하고잇다고한다 一方 蔣氏의 李、白兩氏를 通하야 十九路軍의 撤退交涉에 關해서는 廣東側은 그 別動隊라고도할 十九路軍의 南路占領으로 海岸線을 確保할수잇게되므로 李、白兩氏는 이를 强制撤退케할 意思가 업슬뿐아니라 裏面에서 同軍의 主張을 支持하려는 傾向이 잇스며 다만 前記條件에 基한 蔣、蔡妥協交涉의 進行程度에 依하야 同軍의 一時的北海撤退에 一縷의 希望이 잇슬뿐이다 따라서 同軍의 撤退前에 日本陸戰隊를 上陸케하는것은 자못 危險하고 또 單히 調査員만을 上陸케하더라도 그 調査任務를 遂行하는데 多大한 困難을 招來할것이라고 보고잇다

【廣東十三日發同盟】廣東總領事館發表

中國側은 調査員劉士夢一行이 便乘한 中國側福安號는 十二日 北海에 入港하엿다 日本戶根木、松村兩調査員이 搭乘한 軍艦嵯峨도 同日 到着하엿다 中國側調査員은 곳 上陸하야 十九路軍參謀長과 會見하고 日本側調査員의 上陸에 關하야 諒解를 求하엿던바 十九路軍은 이를 一言下에 拒否하얏다 따라서 日本側은 再次 交涉케하얏스나 不應하매 中國側調査員도 다시 福安號로 退去하얏다 目下의 形勢로는 日本側의 調査는 十九路軍의 北海撤退를 기다릴수밧게업는데 一方余漢謀、黃鎭松氏等으로부터도 十九路軍의 北海撤退를 再要求하엿스나 이에 應할 模樣이 업서 推移는 자못注目되고잇다

十九路軍、北海에 戰時戒嚴令發布
日本側은威信確保上斷乎決意
民心動搖、物情騷然

【廣東十三日發同盟】廣東軍界의 消息에 依하면 日本側調査員의 上陸을 拒否한 十九路軍은 十三日午後三時 마침내 北海地方에 戰時戒嚴令을 施行하고 駐屯各部隊에 對戰鬪準備를 命하얏다고한다

十九路軍이 組織한 抗日宣傳隊는 十二日來 日本調査員及調査員保護를 爲하야 入港한 日本軍艦에 對하야 『海賊外敵』의 侵入을 唱道하고 盛히 軍隊民衆을 煽動하야 北海地方의 民心動搖는 甚하야 物情은 騷然한바가 잇다고한다 事件調査를 全使命으로 오직 圓滿히 調査目的의遂行만 願하고 잇는 日本側은 十九路軍의 非禮에 對하야 極히 冷靜 또는 愼重한態度를가지고잇는데 事件이 事件인것만큼 至急히 그眞相調査를 完了할 必要가잇서 中央及廣東當局에서 速히 日本側으로하여금 目的을 達成케하도록 十九路軍에 對하야 有効 또는適切한 手段을 講究하지안흐면日本의 威信保持를爲하야 中央廣東兩當局은 勿論 廣西의 十九路軍에 對해서도 斷乎한 重大決意로써 對하게될것으로 解釋된다

【上海十三日發同盟】北海事件에 對한 日本의態度는 자못 强硬

實力行使로
十九路軍擊退
海軍首腦部方針

【東京電話同盟】十九路軍의 日本調査員上陸拒否로 方今 北海事態는 一觸即發의 危機에 直面하게되엇다 그런데 現地到着中의 軍艦嵯峨로부터 情報를 接收한 海軍에서는 事態의 重大性을 認識하고 外務當局과 緊密한 連絡을 保持하야 雙方의 情報를 交換하면서 旣定方針에 則하야 要求貫徹에 邁進中인데 十四日 午前九時 永野海相 長谷川次官 豐田軍務局長等 海軍首腦部는 大臣室에 參集하야 먼저 豐田軍務局長으로부터 各方面에서 接受한 情報를 詳細報告하고 旣定方針遂行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얏는데 海軍首腦部에서는 大體 如左한 態度를 가지고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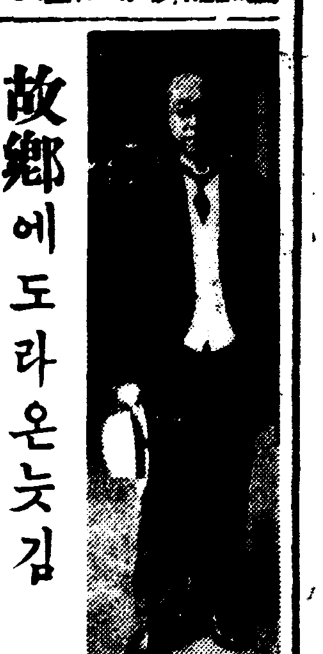
一、國民政府는 誠意로써 北海의 日本調査員上陸에 際하야 便宜를 與하고 이를 保護하여야할것이다

一、十九路軍이 撤退치안는限 調査는 不可能이므로 國民政府는 맛당히 實力을 行使하야 十九路軍을 北海로부터 撤退케할것이다

一、萬若 國民政府가 十九路軍을 現地로부터 撤退시키지안코 時日을 虛費하며 責을 十九路軍에 轉嫁하는데잇서서는 斷乎 旣定方針에 基하야 日本側에서 實力을 行使할밧게 업슬것이다

그러므로 日本의 實力行使에 際하야 生의 一切의 責任은 國民政府가 負하여야할것이다

故鄕에도라온늣김
入京한新警務局長談



三橋新警務局長은 十三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着列車로 着任하엿다함은 旣報한바와갓거니와 途中까지 出迎한記者에게 對하여 左와如히 新任感想談을 說하엿다

『朝鮮에는 滿五年一個月만에오는데 故鄕에도라오는 感이잇다 森岡警務局長時代에 警務課長으로 一年八個月在勤하엿다 其後四年間의 滿人生活에 經驗不足이지 白髮이만히섯다 朝鮮의 事情은 아는터이나 其後社會情勢의 變化로 實際狀況이만히 變하엿슴으로 昔日의 豫備知識을 가지고는안될터이다 着任後詳細한 報告를聽取하여 研究한後에 方針을決定할터이다 人事異動에關하야는 方今 變動이업슬터이며

(寫眞은 京城驛에到着한 三橋警務局長)

三橋警務局長初登廳

三橋新警務局長은 十四日午前九時初登廳하야 局員을 局長室에 모아노코 一場訓示를한後 各局長에게 着任人事를하고 廳內를巡視한後十一時에 記者團과會見하야 所感을 말하엿다 午後에는 正式訪問하고 着任人事를 할터이라한다

그리고 家族은 令孃은 女子高校에 在學中이고 令息은 大學附屬中學校에 在學中인 二人인데 夫人과 家族은 約十日後 入京하게되엿다한다

산·세바스챤市
逐叛軍에게陷落

【안데十三日發同盟】몰라將軍이 指揮한 叛軍北軍은 十二日夜 마츰내 北方의 要衝 산·세바스챤市를 占領하엿다 이미 이룬陷落以來 산·세바스챤市의 落城은 時日問題라고 보고잇던바 政府軍은 十一日 叛軍으로부터 산·세바스챤市를 抛棄치 안흐면 同市를 爆擊하겠다는 旨의 最後的通牒을 밧게되어 비로소 同市를 撤收할 決意를하고 十二日夜 政府軍의 撤收完了를기다려 同市郊外에 待機中이던 叛軍前衛部隊는 命令一下 進軍을開始하야 隊伍堂堂 同市에 入城한것이다

天皇皇后兩陛下
今日宮城還幸啓

【東京電話同盟】天皇、皇后兩陛下께옵서는 去七月二十五日 葉山御用邸에 行幸啓하옵신때로부터 時局을 御軫念하시어 那須御用邸에의 行幸啓도 하옵시지안코 繼續하야 葉山御用邸에 御駐輦하옵시고 게시던바 十四日 五十二日만에 宮城에 御還幸啓하옵시엇다

이날 兩陛下께옵서는 午後一時五十分 略式自動車로 葉山御用邸 御出門、松平宮相、鈴木侍從長、宇佐美侍從武官長以下를 거느리시고 同二時五分 逗子驛 御發車、在京皇族 御總代 梨本宮同妃兩殿下를 奉始하야 皇太后宮御使大谷大夫、閑院總代 寺內陸相 以下 顯官多數 奉迎裡에 同三時五分 東京驛 御着車、곳 宮城에 入御하옵시엇는데 天皇陛下께옵서는 陸軍特別大演習을 御統監하시기 爲하와 來廿四日 御發輦、十九日間에 亘하야 北海道에 御行幸하옵시기때문에 이동안 겨우 十日의 樞密院本會議를 爲始하야 各般의 御政務를 보시압고 또 來十九日 到着하는 브라질特別使節에 御賜謁하옵시는等 御多忙하옵시게 보내시게되시어 御精勵하옵신은 承聞하기에도 惶恐至極한바이다

또 去十日 那須御用邸로부터 葉山御用邸로 옴기신 皇太子殿下、義宮殿下、順宮殿下의 三殿下께옵서는 當分間 葉山御用邸에 御滯在하실 御豫定이시다

스탈린重態說은 全然事實無根
風說、原因은大會會合不出席에

【敦賀電話同盟】歐亞連絡船 사이베리아丸은 十三日 午前七時 船客百五十名을싣고 海參威로부터 北朝鮮經由敦賀에 入港하엿는데 압서歸國命令을 바든 莫府駐箚日本大使館附書記官三浦和一氏夫妻도 同船으로 歸國하엿는데 滯蘇三個年、最近의 蘇聯邦의 實情에 對하야 如左한 말을하엿다

例의 스탈린問題로 各國이 騷動하고잇는 모양이나 스탈린重態說은 臆測이라고생각되는 點이만타 나는 全然事實無根이라고 밋는다 스탈린重態說이 起한 原因이라고 볼것은 元來스탈린氏는 群衆의集會에는 밧듯이出席하고잇는데 不拘하고 最近의 二重要集會에 一般의 歡迎에 反하야 出席치아니한 事實에서 생긴것이 아닌가 推測된다 키로프事件으로 한번에十六名이나 銃殺에附하야 蘇聯邦은 非常히 動搖를 招來하고 잇다고하는데 이뉴스는 거의 巴里로부터온 것으로 信憑할것이 못된다 云云

蘇、正式抗議時엔 獨蘇關係爆發?

【莫斯科十二日發同盟】莫斯科政府는 나치스黨大會에서 히틀러總統以下 黨首腦部가 連日 激烈한 볼쉐비즘攻擊의 砲列을펴고잇는데 憤慨하야 이미 去十一日 伯林政府에 對하야 書面의 警告를 發하엿는데 히틀러總統이 十二日의 大會에서

萬若 獨逸에 우랄鑛區와 西伯利亞의 資源과 우크라이나野의 穀類가 잇스면 云云하고

萬若 蘇聯이 獨逸을攻擊한다면 獨逸은 蘇聯을 征服할것이다

等等 蘇聯에 對하야 露骨한抗蘇的演說을 行한것은 몹시 蘇聯側을 刺戟한 模樣으로 莫斯科政府는 獨逸政府에 對하야 近近 正式抗議를 提出할것이 아닌가한다 히틀러總統은 今次 大會를 契機로 伊、墺、匈과 提携하야 反蘇神聖同盟을 提唱할 意向이라고 傳하는等 獨逸의反蘇熱은 마츰내 노파지고잇서 莫斯科政府가 公式抗議를 提出하게되면 獨、蘇間은 一觸即發의 重大危機에 直面할것으로보인다

總督府明年豫算 四億一千萬圓!
拓務省에提出折衝

總督府明年度豫算은 財務局査定에 基하야 各局으로부터 復活要求를 折衝中이던바 財務局과 各局間의 折衝을 終了하얏스므로 昨十三日 日曜임에도不拘하고 林財務局長, 水田司計課長은 午前中에 總監邸에서 大野政務總監에게 詳細히 說明하고 午後는 總督官邸에서 南總督에게 報告하야 一日部內의編成手續을 終了하엿스므로 財務局에서는 十四日부터 即時計數整理에 着手하야 今週中에 終了한後 總督府明年度豫算概算書로 整理하야 來 二十日頃同概算書를 가지고 水田司計課長이 渡東하고 이어서 林財務局長이 渡東하야拓務省에 對하야 說明하고 十月末又는 十一月初에는 大野 政務總監이 渡東하야中央政府와 本格的豫算編成折衝을開始할터인데 明年度總豫算概算에 依하면 總豫算 實로 四億一千萬圓程度에 達하는 未曾有의大膨脹을 示하야 躍進朝鮮의 各方面에 一段의 活力을 加할것이라고 期待되고잇다 또 水田司計課長은 渡東後 拓務省에說明하고 可及的 速히 歸任하야 水害對策에 關한 追加豫算査定에 着手할 豫定이다

京城發東京에
田中前警務局長

田中前警務局長은 十四日午後三時 京城驛發列車로 官民多數餞送裡에 一路東京에 向하엿는데 總督府에서는 福江理事官이 東京까지 餞送키로 되엿다

八面鋒

現行制度에不拘하고 實質的으로 庶政一新을 斷行하겟다는 것이 廣田首相의 意思。

◇

制度보다도 運用이必要하다는 말도잇스나、運用을 너무함부로하는데도 無理가생기지안흘지念慮。

◇

十九路軍이 日本側調査委員의上陸을 拒絶하엿다고。

◇

陸海外三省의 斷乎한 方針이 잇는以上 그대로 어물어물解決은困難할것

◇

長津、三水地方에는 발서부터初霜이 나리엇다고。

◇

農作物의被害도 걱정이려니와百萬에 갓가운 水害罹災民의 前途가 더욱可憐。

白頭山探險記 ㉔
無頭峰서眺望한 無際涯한大樹海
徐椿

目的한 露營地에 일즉 到着해 보기는 今日(十二日)이 처음이다。入山第一日農事洞에서 茂峰으로 올때에도 午後六時가 너머서야 到着햇고 入山第二日 茂峰으로부터 神武城으로 올때에도 亦是 午後六時가 너머서야 到着햇다。그런든것이 今日은 行程이 짜른 關係도 잇지마는 또하나는 다만 한時間이라도 빨리 到着하겟다는 마음으로 中間에 點心도 안코 그냥 왓기때문에 午後두時頃에 無頭峰에 到着한것이다。일즉 到着한것은 一行에게 元氣又는 活氣와 愉快味를 주엇다。一은 露營에 對한 休養時間이 만흔것을 생각하기때문이오、二은 無頭峰의 尋常치 아니한 景致를 遺憾업시 求景할수가 잇슬것을 豫期하기때문이엇다。

到着하자마자 니여 一行은 昨夜神武城에서 지여서 飯盒에 너어 가지고 온 찬밥으로 點心을 먹엇다。

點心後에 一行中에는 連日露營에 濕氣가 가득찬 行具를 볏헤 널고 잇는 사람이 만헛다。볏헤 너러 노코면 暫時間에 곳 빗방울(雨滴)이 떠러지고, 비를 보고 거더 드리면 어느새에 또 볏이 나고하야 하늘은 우리를 弄絡하는듯한 느낌이 잇섯다。

우리 一行中에 最高年齡者는 海州게신 鄭在鎔氏엇다。氏는 五十一歲로서 探險團參加에 年齡으로보아 이것이 或 妨害가 되지 안흘까?를 두려워하야 參加申込에는 四十九歲로 주리어섯다고한다。이最高年齡者鄭在鎔氏가 團員三十三名中에는 第一로 元氣가 잇는 분이엇다。團員中 姜正高普生林容壽君의 二十二歲를 最低로하야 大部分은 三十歲前後이엇스나 鄭在鎔氏의 元氣를 敢히 따르는 사람이 업섯다。勿論 元氣가 旺盛하니까 그러켓지마는 氏는 또한 가장 活動的이엇다。氏는 비록 休憩時間에도 暫時도 가만 잇지 안코 四方의 景致를 차저단니기에 恒常 奔忙하엿다。이 가장 元氣 잇고, 가장 活動的인 鄭在鎔氏는 또한 自己의 아들을 다리고 왓다는 點으로 一行의 注意를 끌엇다。氏의 아들님은 이름을 鄭士永(二十四歲)이라고하는 분으로서 現在 醫專在學生이다。이 鄭氏父子분은 저 姜氏三兄弟와 아울너서 우리 一行中에 斷然 異彩를 나타내인 분들이다。

活動家鄭在鎔老人이 나를 차저와서 저無頭峰上에 올나서면 千里天坪의 全部를 一眸下에 鳥瞰할수가 잇스니 가 보라고 한다。나는 그말을 듯고

『先生은 元氣가 조흐시니 受苦롭겟지마는 다시 한번 저와 가치 가주시렵니까?』

고 무러더니, 鄭先生은 이것을 承諾하시엇다。

有志를 마合하야 約二十名이 一團이 되여 가기를 始作햇다。露營地에서 無頭峰上까지는 約三里나 되는데 所要時間은 한三十分 걸니다고한다。露營地에서 峰上을 올나가는데는 몬즘 욱숙 드러간 滿飯을 지나서 다시 峰上을 向하야 急傾斜地를 추워 올나가야 된다。

가는 途中은 全部、奇花妖草로 덥혓다。한발을 옴겨 노흘 때마다 그풀을 밟기가 어떠케 애초럽고 아까운지 모른다。짜를쪽이니、岩高蘭이니、石楠이니、白鮮이니하야 빗다른 여러가지 奇花와 妖草가 땅을 폭 덥흔 據은 마치 繡노흔 毛氈을 깔아노흔것 한데, 발로 짓흐면 쑥 드러갓다가 다시 뛰어 오르는 그感覺은 마치 바네式으로 된 寢臺를 밟는것 갓햇다。

無頭峰上에 올나서서 南向하야 굽어보니 果然 이것은 一生에 처음보는 光景이엇다。東西南三面으로 三四百里를 탁 터짓는데, 탁터진 平坦한 그高原에 마치 밀 밧에 밀(小麥) 드러서드시、삼밧(麻田)에 삼드러서드시 이깔나무가 소복이 드러서 가지고 그깔한 머리를 가즈런히 마조 대이어 水面을 形成하고 잇는다。西로는大小臙脂峰、鮮奧山、熊戲峰、卧獅峰、間白山、小白山、增岩山等이 가로막히고 南으로는 南北胞胎山、冠冒峰、頭流山、大小甫應山等이 멀리 相望하고 東으로는 이를 모두 滿洲側 諸小山이 보이는듯 마는듯이 明滅하고 잇는데、이 周圍諸山에 이르기까지 東西南三面으로 탁터진 廣袤三四百里의 大高原은 即、이깔나무숩으로 된 一大樹海다。文字그대로 一望無際다。平坦한 高原에 키가른 이깔나무가 소복이 서가지고 그 팔한 樹頭를 가즈란히 마주대여 水色을 일우엇스니 이點으로 보아 첫재 바다(海)라는 생각이 나고、또、바라보면 보이는데까지는 끗가튼 水色으로 相連햇스니 이點으로 보아도 바다요、저멀니 보이는 가(涯)에 가서는 하늘과 서로 連接하야 水天一色을 形成햇스니 이點으로 보아도 바다라고 形容 할수밧게 업다。

보는者 이것을 보고 森森蕭蕭이니, 渺渺茫茫이니, 幽幽玄玄寂寂이니 莊嚴深邃雄遠이니, 雄渾廣漠浩大니 形容해 보앗다사 膝下한 맷마디 文字를 가지고는 그景致의 億萬分의 一도 表現되지 못하리만한 雄壯雄麗의 幽境이라고 할수밧게 업다。(寫眞은 無頭峰上에서 본 千里天坪의 一部=樹海)

갑장
製造家를求함
○年中無休……收入確實
本業은小資本으로서京鄉을莫論하고婦女子들이容易하게製造、製法은二三日의講習으로充分、製品은一手로引受、綿絲는供給하여들임으로서遠地에서라도不便업시取引할수잇음、目下有利한條件으로서製造者急募中 詳細는通知次第說明書無料送呈
朝日軍手京城支店
京城府黃金町五三電停前 電話本局(2)二七五三番
本店·大阪·支店·東京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業○動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現代出版社 大阪大軌線生駒停留場前 博文社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一種五圓十圓で教へた秘法盡く公開!!
●今まで他に類のない寶本!
萬國不思議秘傳秘法大寶典

감 옷
韓青商會
京城桂洞町 電光一三九九番

山羊
瑞西直輸入純粹ザーネン種分讓 農會種苗場學校特別優待 京城東小門外
明本山羊牧場

純正商標見本
直輸入販賣商 同福公 京城南大門通四丁目一四 仁川府支那町
總販賣店 京城 李泰漢商店 電話本局二一五二三番

오케一大傑作流行歌
채란새 李銀波
(一四一九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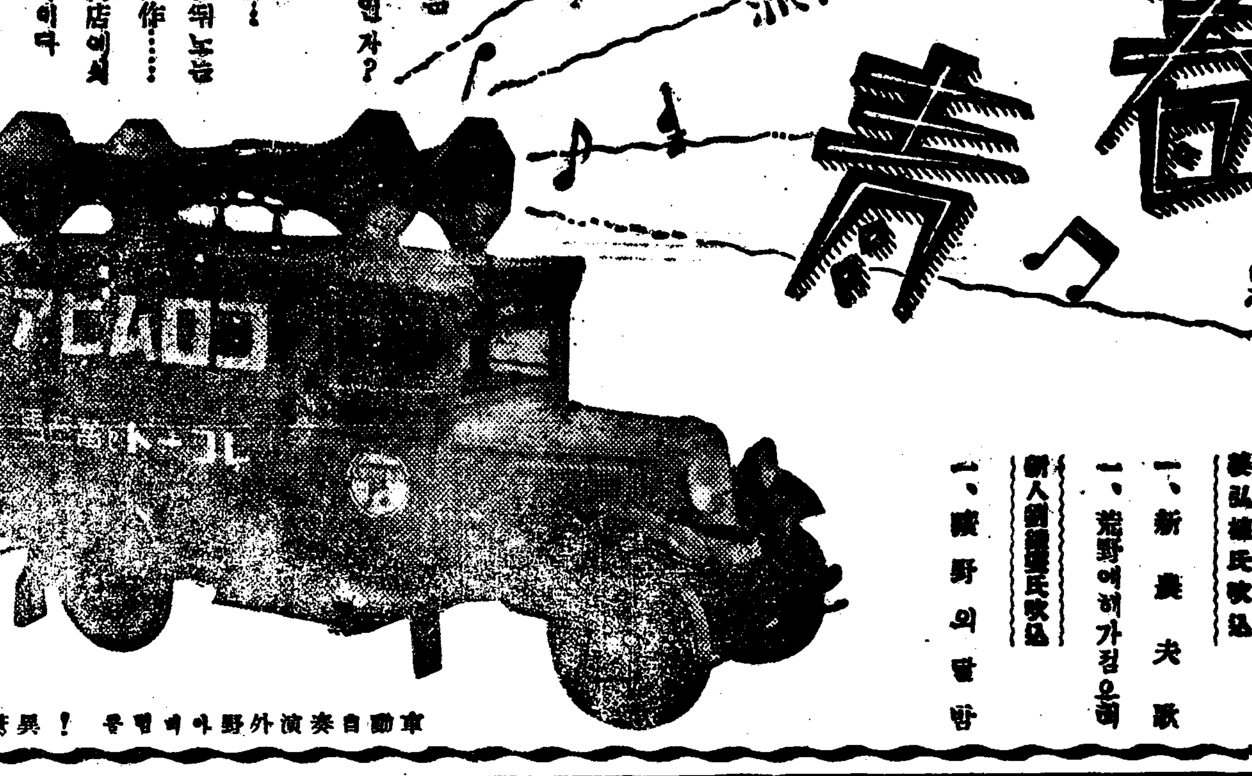
Columbia
初秋의力作! 流行歌의最高峰!
靑春口笛
惑星미스터·콜럼비아 吹込
미스터 콜럼비아는 누구연가?
魅惑的美聲! 流麗한節調!
젊은이의 가슴에 노는 靑春謳歌의 快作……
卽時近處特約店에서 試聽을바랍니다
콜럼비아 最近의 優秀盤
自動車野外演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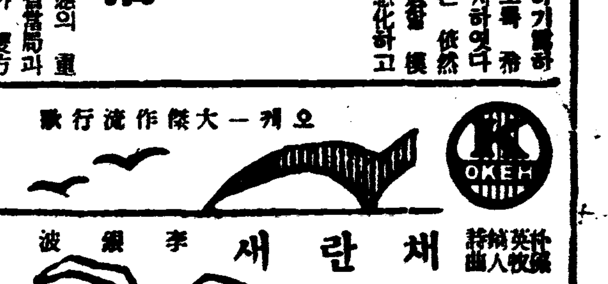
女子店員募集
一、募集要項
(甲)容態 (1)明朗着實하고印象이良好한者(2)親切하고進步的性情을가진者(3)品位잇는活動的健康者로現代的健康美가잇는者
(乙)資格 (1)身長五尺一寸標準(2)中等學校卒業及同卒業程度의學力이잇는者(3)年齡十七歲부터二十三才까지(4)京城市內에서通勤可能한者(5)職歷이有함은無妨하나未婚者에限함(6)身元保證人二人을세울수잇는者
二、申込 希望者는自筆履歷書及最近寫眞(半身)을添付하야和信人事係로本人이持參提出할것
三、申込期限 昭和十一年九月二十五日까지

株式會社四海公論社大計劃
支分局長募集
文化奉公의 人間的事業收入多大
唯我四海公論이 只今에累數萬의愛讀者를擁하야 新朝鮮第一의發行部數를내게되것은衷心同慶하야마지아니합니다 이에 다시一層그發展을圖謀하며 大雜誌王國建設의組織的體系를 完成하기爲하야玆에劃期的大計畫을發表하오니 우리社會를熱愛하시고 우리文化向上에至衷을가지신 江湖僉位는驀然讚同하시와 이擴大한 大陣容에 期於參加하야 脫一籌의勞를앗기지마시기를懇望합니다
規定書 請求次第郵送
京城竹添町 株式會社 四海公論社

校舍大擴張
第四十七回生徒募集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九月十六日◇學則要二錢切手
實踐簿記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三六〇番)

京城 生徒募集
◎新學期開始九月十六日(晝夜)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學校入學又編入學準備
中等豫備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三六〇番)





野津○隊 服部○隊 九十餘名을犧牲

濱江省大馬溝와穆陵間에서 士兵襲擊列車顚覆

【福岡電話同盟】 淸水本部隊留守隊司令部發表＝야진○대(野津○隊)는 복부○대(服部○隊)음호 미례 십삼일 ○○에 이동하든송도중에서 유력한 토병의 습격을맛나서 렬차는 전복되엿고 려전불급하야 마침내 구십여명의 희생자를 내엿다

【福岡電話同盟】 령목(鈴木)류수부대에 십삼일 오후아홉시 입전에의하면 전로(田路)부대의 길원(吉原)중위에게 례속된 야진○대(野津○隊)는 십삼일 오전한시 복부○대(服部○隊)의 음호대로 긔차수송도중 빈강성대마구(濱江省大馬溝) 목릉(穆陵)의 중간에서 토병 약삼백오십명과 마주처서 렬차는 전복되엿고 전투한결과 다음과가튼 전사자와 부상자를 내엿다한다

▲野津○隊 (死者五名) 野津中尉·(高根縣) 一等兵 川崎邦雄 (福岡縣) 同 魚住正雄(福岡縣) 同 淸野儔數(愛知縣) 同 西川三藏(愛知縣) 外負傷者十名

▲服部○隊 戰死十八名 負傷五十八名

二百餘名合流匪 碧潼對岸에來襲

平北警察部長等急行

【新義州支局發電】 여태까지한번도 습격을당한일이업든 평북벽동경찰서(碧潼署)봉곡출장소(鳳谷出張所)대안 만주관전현대황구(寬甸縣大荒溝)강구(江口)에잇는 풍흥후(豊興厚)상점에 십삼일오후두시에 반만군 좌사령(佐司令)일파 팔십명이 덥처서 략탈을한뒤 벽지로 도주하엿다 이 정보를밧고 조사하려 압록강을 건너가든 봉곡출장소 세곡(細谷) 장곡천(長谷川)두순사와 밀정두명은 그날밤 늣게까지 소식이 업스므로 벽동경찰서에서는 연곡(硏谷) 경부보이하이 십칠명과 포석(浦石) 주둔 안등대위(安藤大尉)이하 ○○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야 조사한결과 그들의 배후에는 좌사령 왕봉각(王鳳閣)준산(俊山)가파가 합류된 이백사십명과 양사령(楊司令)일파 사백명이 잠복하여잇슴을 알게되엿다

그래서 이것을 토벌하기위하야 십사일 아침에 평북경찰부로부터 고천(古川)경찰부장 하야(河野) 경무과장 주정(酒井)상촌(上村)경부외일명이 급행하엿스며 국경경비행긔도 출동하엿다

李雲爀滿期出獄

지난소화륙년 여름에 시내서대문서(西大門署)에검거된 조선공산당재건위원회 (朝鮮共産黨再建委員會) 의거두 리운혁(李雲爀)은 그동안치안유지법위반으로 대전(大田)형무소에서 륙년징역에복역하고잇던중 지난십이일에 만긔출옥하엿는데 방금시내견지정(堅志町)소경(昇京)려관에 류숙중이다

峴底町民大會는 十五日로延期!

會社側態度가注目處

귀보=부내 관동정(館洞町)에 잇는 려진토지 경영회사 (豊景土地經營會社)에서 그회사소유로 잇는 현저정(峴底町)과 행촌정(杏村町)관동정(館洞町)일부에거주하는 주민에게 차지료 (借地料)와 토지매각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자 불의에 이통지를바든 주민들이 십삼일 주민대회를열고 이에대한 대책을강구할려든십사일 회사측과절충하게 되여잇섯는데 이는모사정으로 명일로 연긔되엿다 그런데 이사건에 관하야 회사측과 주민측의 주장은대개다음과가트며 교섭경과여하에 딸아 이근방이천주민의 사활문제가 부든 이사건이 어떠케 해결될는지일반의 주목을끌고잇다

前總督前總監 巨額救濟金을寄託

조선수해의 참담한보도를 멀니 동경에서 듯고 이에 동정하야 전총독 우원대장은 일금 천원을, 전정무총감 금정전씨는 일금오백원을 수해의연금으로 십사일 조선사회사업협회에 긔탁하여왓다한다

漢江이삼켜버린 萬五千圓"大金"

그實은行方不明된통나무갑

부내 다옥정(茶屋町)십칠번지 우종섭(禹鍾燮)은 지난달 이십팔일에 둘래두자에 기리열다섯자로 스무자까지되는 통나무일만사천에일문개ㅡ그갑 일만오천원가량ㅡ을 강원도린제(麟蹄)로부터 한강(漢江)쪽으로 흘려운반해오다가 때가마침 장마통이라 거친물결에 휩슬려 어데로인지 떠나려가고 만것이 일전에야알게되엿다하여 그것을차저달라고십사일룡산서에게출해왓다

作曲과指揮에 新境地를期待

四年間米洲서專攻한 朴泰俊氏還鄕抱負

날로빛나는 조선의 예술계를 등에메고 힌찬거름을 거름여군들이 힘답게도모혀들고잇다。일즉이동요(童謠) 작곡가로유명하든 대구(大邱)출생 박태준(朴泰俊)씨는 뜻한바잇서 십년동안의 교원생활을 버리고 지금으로부터 사년전소화칠년시월에전공해오든음악을 연구하고저 미국으로 건너가 남방테네씨ㅡ주(州)러쓰헬런음악학교에서 일년동안을연구하야『예이·예ㅣ』의학위를 엇고 그후 동북지방인『뉴쩔씨ㅡ』주프린쓰톤음악학교에서 이년동안을 작곡과합창단에대한지휘법을 연구하야『엠유에쓰·삐』학위를 엇고 다시 그학교에서 음악학(音樂學)을 일년동안전공하야『엠엠』학위를 어든후 금번귀국하야 그의모교인평양숭실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을터이라고한다。특히씨가 전공한바 음악과목은연주가로서의 그것이 아니요원래도전문가이상의 전문을 가진 작곡을 전공한한편으로합창단의지휘에대하야 벌서대가의 온축을싸엇다고한다 이 합창단은 평범한코ㅡ러쓰가 아니라 기악으로말하면『씸포니』에필적할합창단으로 효과에잇서서『씸포니』이상의 예술적효과를나게 할합창지휘법으로 아죽조선의단에서는개척하지못한경지라고한다 그리고씨는 서악에잇서서는 전문연주이상 기술적으로 란숙한지경에미처 근간형편에따라서는 독창회도한번개최할터이라한다 어디까지라도 학자풍인씨는 겸손한태도로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나는 결코연주가는 안입니다 저곳에서도 작곡과지휘법을전공햇습니다 지휘도 코ㅡ러쓰에 대한지휘입니다 작곡도 십여편만든것이잇슴니다 기회잇는대로 발표할가합니다 저곳서오래잇고보니차차 조선정서가희미하게 되여요지음와서는 실제작곡은 조선땅을 밟은뒤에하기로하고 기술만 연구햇습니다 아프로 지휘자를양성하는 사업과 작곡을전문으로 할가합니다 성악요?한창지휘법을연구하자면 안뵈홍수가업습니다 본의는아니나과회잇스면연주회를 한번열어도조켓요 (사진은 박태준씨)

『殺意는全然업다 美貌"剝奪"이本意』

妹夫에게칼질한柳義卓에게 三年求刑、言渡는廿一에

자긔의누이가 신혼초에 남편에게 참지못할모욕을밧고 친정으로 도리와서 우는모양을 보고 격분한나머지에 그의매부의 집을 차저가서 몃마듸말을 하다가 칼로 얼골과 머리등에상해를 내이고 살인미수죄로 법정에서게된 부내종로륙정목 삼십번지의십팔호 류의탁(柳義卓)(二七)에 관한 제일회공판은 십사일오전열시부터 경성지방법원형사부 제사호법정에서 증촌(增村)재판장주심 청류(靑柳)검사관여미테 열리엇다 먼저 사실심리에 들어가서 피고의 누이 류령혜(柳令惠)와 그의매부 김상한(金相漢)과의 결혼하게되든경과와 및 그들의 결혼 식장에 긔생 최옥희(崔玉姬)가 그의동무를 데리고 와서 야료를 하든경과 팔월이일아침 류령혜가 모욕을당하엿다고 울고친정으로돌어온것을보고 부내남대문통삼정목 롱천(瀧川)철물점에들어가서 단도한개를 사가지고내수정(內需町)칠십일번지의구호 김상한의집에가서 그가누어잇는것을 깨우다가 오만한태도로 일어나지안하매 그의며페안저서 최옥희와의 관계를계속함이 잘못되엇는지 생각되지안는가를어보다가 칼로 그의얼골과 머리를 찔르일이잇느냐는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에대하야 피고는사실전부를 대개시인하고 다만그의얼골에상처를내어 다시는고흔 얼골을 밋기로 젊은녀자를롱나하지못하게하려한것이지 결코죽일의사는 업섯다고 연겹피살의를 부인하엿다 심리가 끗난다음 검사는 이사건은 피고가미리 날카로운 칼을 준비한것으로보아 살의가 충분하며 또그들의 결혼경로로보아 조금도동정할 여지가업스니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야 삼년징역판결을내려달라는 준렬한 론고가 잇섯다 삼년구형을 하자 방청석에 모혀든 피고의가족들밋 일반방청인 륙십여명은 다소 놀래인 표정을하는동안에변호인 영도(永島)씨는 이사건은 동기로보나경과로보나 상처로보나 전연살의가 업는것이 분명한즉 상해죄를 적용하야 피고의 압길을동정하여주기를 바란다는 변론이 잇슨후 오는이십일일에 언도하기로하고 령시오십분에 폐정하엿다

在鮮中에는公私로여러가지厚意를蒙하옵고退鮮에際하여는多忙하심을不拘하시고親히餞送하여주심을感謝하는바입니다

田中武雄 美津子

大東商校生失踪

시내성북정(城北町)륙십번지의칠호신씨(愼氏)의집에 하숙하고잇는 대동(大東)상업학교학생북청(北靑)출신리석철(李錫喆)(一七)은일주일전에 양복을 수선하려간다고하숙집을 나간후 소식조차업서 도라오지안는다하야 각방면으로 행방을 수사중이라한다

墮胎嫌疑의死胎

西大門町共同便所에서 京城府糞尿汲取人夫가發見

십사일 오전열시경에 시내서대문정(西大門町)一정목칠십칠번지 아페잇는 공동변소에서 경성부청 분뇨급취(汲取)인부가 사태(死胎)하나를 발견하여 곳소관 종로서에 계출하여왓슴으로 그서에서는 그사태를 끄집어내다가 경찰의진(晋)박사의 감정을밧엇는데 임신한지약 다섯달되는 남성으로 류산인지 또는타태인지 분간할수조차업는 상태이어서 사태는 곳경성부청으로 넘기엇다 그서사법계에서는 혹시타태한것인지도 몰음으로다하야 활동을 개시하야 용의자로 고씨(高氏)(二二)라는 여염집 부녀한명을 검속하고 사방으로계속활동중인데 그추이가 자못 주목된다

新里敎會移轉

【平壤】 긔독교조선감리회 신리교회(新里敎會)에서는 신리백십칠번지 전국제고무공장자리(前國際고무工場跡)에 이전햇다한다

背恩忘德한乞人

은혜를 도적질로 갑는자ㅡ충남 공주읍내(公州邑內)에 원적을둔 김성만(金成萬)이라자는 지난팔일아츰열시쯤되여 시내 신당정(新堂町)백십일번지 리천이(李千伊)음식점에와서 주린얼골로 고용하야주기를 애걸하므로 주인이 불상히녀여 고용하엿더니 그이튼날인 구일아츰 열한시쯤되여 주인집 자전거를 훔처타고 나간채 도라오지안는다고한다。

◇新築落成 無料診察 校洞入口

小兒科 內科 楊在植醫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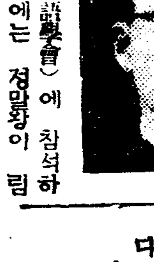
獨房入院室完備 電光一七九二

大金携帶한犯人 마츰내咸興에서被捉

지난팔월십사일부로 시내본정서에서 대금휴대범인 (大金携帶犯人)으로 지명수배중이든김태관(金泰寬)(二二)이가 함흥(咸興)시내에 원비잡통중 함흥서원의손에 붓잡혀 소관본정서로 호송되여왓다 김태관은 원적을 함남영흥군장흥면조상리 (永興郡長興面上里) 팔십팔번지에두고 소화구년 사월경부터 시내 본정이정목 팔십칠번지 마쪽상 고촌심일(高村深一)의집에 배달부로잇는것을 과회로 지난 팔월십일일주인이 업는틈을 타서 식산은행 소절수장을 훔처내어 천원을 은행에가서 차저가지고 그길로 전긔고촌과거래잇는 남대문통오정목 조선피혁회사 (朝鮮皮革會社)에가서 주인의심부름이라고 현금백원을 차즌후 집세 이십일원까지 수금하여가지고는 어데로인가 종적을감추엇다 신고를바든 본정서에서는 전조선각지에 수배망을 느린것은 물론 더욱국경방면의 경계를엄밀히하야 이래수색중 드듸여전긔와가티 함흥서에서 체포되여온것이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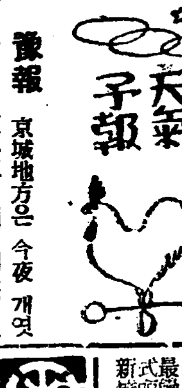
丁抹首府에開催된 世界言語學會!

延專敎授鄭寅燮氏도參席 氏의研究에모다注目



목하양행(洋行)중에잇는 연희전문학교교수 (延專敎授) 정인섭(鄭寅燮)씨는 지난 팔월이십칠일 정말(丁抹)의수도코펜하겐시에 잇는"코펜"대학에서 세계언어학회 (世界言語學會)에 참석하엿다 그대회에는 정말왕이 림석하엿고 세계 최대영어학자 "에스페르센"교수(七六)의 사회로 세계언어학회를 열엇는데세계각국의 어문교육자는 모다이곳에모혀고 멀리 애급 토이기 인도등지에서도 참석하야 자못 성관을이루웟다한다

정인섭씨는"조선어문과 구미어문과의비교"를 중심으로 연구한것을 발표하엿고 의안(議案)도 제출하엿다 한다 이곳 "코펜하겐"에서 제일 그규모가큰신문 (조간만도 이십이페ㅣ지)인 "포리티켄"신문의 제십페ㅣ지에 정인섭씨를 소개하야 특히 호의를 표시하엿다한다 그리고 전긔 세계최대의 영어학자 에스페르센교수는 특히 정인섭씨의 연구에 주목하야친필한 비판을하엿고 또다부사람이 긔념촬영도하엿다한다(사진은 정인섭씨)



天氣予報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 개엿다 흐렷다한다 明日에도개엿다 흐렷다한다 京畿全區도갓다

昨日 最高 二五度六

同 最低 二〇度六

今朝 最低 一八度

今日 正午 二五度三

仁川殺人强盜 事實無根으로判明

지난십삼일인천부 우각리(牛角里) 삼십번지문영로(文永老)가 경인선 오류동(梧柳洞)역전그의친구집에가서 돈팔십오원을 빌여가지고 도라오든도중 인천부률목리(栗木里)화장장압헤서 어떤괴한에게 습격되야 즉사되엿후에 돈까지빼앗겨서 소관인천경찰서에서는 전서원이 비상선을 느리고 범인을수사중이라는 사건은 그후조사한결과 전연사실무근임이판명되엿다

運動競技

神競蹴球 參加規定發表

朝鮮神宮奉贊大會蹴球競技는 來十月九日로부터 十四日까지 (六日間)京城運動場에서 開催할터인데 이미 全大邱、全州商業、平壤崇實、平壤蹴球團等이 參加申請을 終了한바 同大會의 參加規定及其他事項은 다음과가다

▲競技種目＝1 一般部 (今年度에는遼對抗에準하야 行하며 明年度부터 遼對抗을實施豫定) 2 高等專門大學部 3 中等學校部

▲出場資格＝左記條項에該當한者는 出場資格이無함

1、轉學또는 中途入學者로서 其學年을 修了치못한者 2、朝鮮蹴球協會에 加盟登錄치안흔者 (但本大會出場까지 加盟登錄手續을完了한者는 此限에不在함) 3、朝鮮蹴球協會의懲戒處分을밧고잇는者

▲推薦方法＝朝鮮蹴球協會委員會서 推薦함

▲申込處＝京城府黃金町七丁目京城運動場事務所內金命福氏에게

▲申込期日＝九月二十日까지參加料一團體에 金二圓을添付하야 申請할것 (但朝鮮蹴球協會未加盟團은 入會金五圓과 今年度會費十圓을參加料와함께納入한것) 그리고 特히今回에限하야 入會金五圓을免除함

京畿陸上續報

京畿道體育協會主催의 道內選手權及朝鮮神宮競技大會 京畿道豫選會는 十三日午前十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린바 昨報以後의 戰績은 다음과가다

【百米】1金裕澤(培材)一一秒F 2福田(鐵道) 一一秒F (以上大會新記錄) 3山根(京城) 4李鍾[illegible](仁商) 5內田(龍中) 6[illegible](龍山)

【二百米】1金仁楨(遞信)二三秒一 2金道元(培材)二三秒一 3李鍾淳(仁商) 4李景燦(養正) 5金裕澤(培材) 6內田(龍中)

【五千米】1吳東裕(鐵道)一六分三二秒二 2崔俊根(鐵道) 3李鍾峰(培材) 4松川(仁川) 朴仁熙(高商) 6金善鎭(二高)

【中距離】1張洪植(高商)六六秒六 2安達(遞信)六七秒五 3大迫(遞信)

【三千米障礙】1金斗仁(아俱)

【[illegible]】1金閏鳳(利川)三六秒三 2金甘龍(利川)三八秒一 3安榮俊(利川) 4鄭七用(加平) 5金壽福(京城) 6金裕完(京城)

【四百米競走】1鐵道팀(岩原、山本、宮田、福田)四五秒F 2遞信팀(大迫、松崎、韓喆鎬、金仁植)四六秒 3養正팀(馬錫國、高圭復、李景燦、金充煥) 4京師팀 5京商팀

【八百米競走】1培材팀(田府崎、林東利、李東奭、金裕澤)一分三九秒二 2養正팀(白永起、高圭復、李景燦、金充煥)一分四〇秒三 3龍中팀 4京師팀

【千六百米競走】1遞信팀(安達、大迫、鄭倉金、金仁植)三分四六秒六 2養正팀(馬錫國、李景燦、金充煥、高圭復)三分四八秒 3龍中팀 4培材팀

【三段跳】1金[illegible](延專)一四米一九大會新記錄 2久保(鐵道)一三米四七 3木村(京城)一三米二 4大內(아俱)一二米九六 5北野(京工)一二米六七 6朴[illegible](仁商)一二米四二

【投槍】1宮田(鐵道)五〇米〇七 2李東鎭(京城)四八米五八 3松崎(遞信)四五米四五 4大井(龍中)四六米五三 5崔[illegible](仁川)四三米五〇 6中野(鐵道)四三米三〇

【投鐵槌】1安榮植(徽文)三六米〇六 2白承鎭(養正)三四米一三 3松崎(遞信)三一米一五 4李景燦(培材)一八米一九

朝鐵러비戰에 朝鐵軍이勝捷

朝鮮鐵道局對交通部의비對抗戰은 十三日午後二時十分부터 龍山新設球場에서 上野(主)川原、大野(線)三氏 審判下에 朝鐵先攻으로 開戰된바 結局二十二對八로 朝鐵軍이 快勝하엿다

朝鐵22 (616···0·8) 8交通局

鐵道4 府廳0

京城實業野球秋期리ㅣ그第二日 府廳對鐵道戰은 十三日午後一時半부터 京城球場에서 百瀨(球) 石井、大島、橫口(壘)四氏審判下에 鐵道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四對零으로 鐵道軍이勝捷하엿다

府廳	000000000	0
鐵道	000040000	4

◇投捕＝(鐵道)森田ー會田(府廳)松元、安藤ー崔仲乙

殖銀3 遞信1

同殖銀對遞信戰은 同日午後四時五分부터 遞信先攻으로 開戰된바 結局三A對一로 殖銀快勝

遞信	000000001	1
殖銀	00000030A	3

◇投捕＝(殖銀)德島ー佐藤(遞信) 中島ー古賀

早大4 東大4

東大對早大第二回戰과 立敎對法政第二回戰은 十三日午後零時부터神宮球場에서 열린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早東戰은 十二回까지에 結局四對四의 無勝負로終了되엿스며 法立戰은 七A對三으로 立敎軍雪辱하엿다

東	000040000000	4
早	000001300000	4

◇投捕＝(早大)近藤、若原ー小楠(東大)久保田ー錄川

◇投捕＝(立敎)鹽田、石田ー別井(法政)成田、赤根、森近ー藤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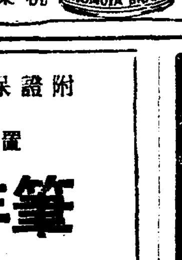
法政	003000000	3
立敎	00402100A	7

박가분화장품 朴家粉化粧品

最新發賣 박가구리ㅡ무 박가해지마수 박가가루분 박가수백분 박가향유 박가포마ㅡ드 박가고루도에기

本舖 京城府蓮池町二七〇 電話光化門三三〇

綱緞綿布都散賣商 株式會社 朴承稷商店 京城府鍾路四丁目一五番地 電話光化門五七一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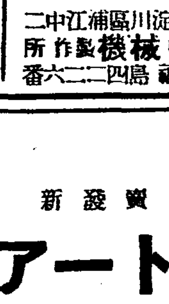


桃屋의果實罐詰 후루ㅡ쓰 品質第一等

白桃、黃桃 枇杷、西洋梨 후루ㅡ쓰사이다 櫻桃 鳳梨 櫻桃

各데파ㅡ트、食料品店에잇소!

東京 桃屋發賣



スメル延 製綿菓子機 新式最優秀機 特許機 カタログ呈 穀物膨脹機 金儲

大阪西淀川區浦江中二 石堅機械製作所 電話福島二二四六番

朝報案内

日本一安い保險料 愛國生命

社員招聘 年齡二十五歲以上男子五名 待遇特別 不問經驗有無 生活安定 京城黃金町二丁目 愛國生命京城出張所 指導者 崔宇楨 履歷書持參

◇라디오드라마懸賞募集◇

恩給 最大最長期立替 京城光化門通一四七 朴商會

附保證年ヶ二 新發賣ストロング裝置 アート高級萬年筆 アート製作本舖 米澤萬正堂 京城本町一丁目 電本四〇一六 全完備設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一劑十圓 平和堂 京城堅志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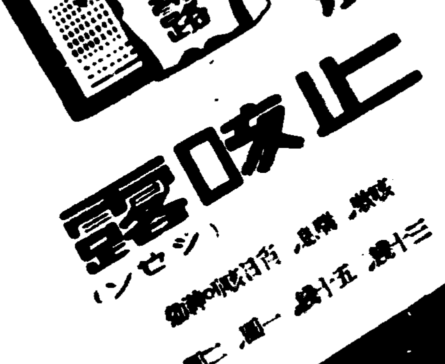
新案特許 マウントン印擂碎機 ライト發動機鮮滿發賣元

用途ー一時間ノ能力 米細粉五升乃至一斗 唐モロコシ、豆、米、麥、

二馬力ヨリ十二馬力マデ在庫豊富

特價放賣 大特價直卸し開始

京城府元町一丁目百七十番地 長谷部工場營業所 電話龍山三四一七・振替京城一八二四三



祛痰 止咳露 (セキドメ) 三十錢、五十錢、一圓、二圓

製造元 惠善堂製藥株式會社 京城鐘路三・振替京城一九〇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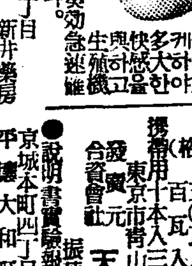
京城橋南町電車停留場前 趙漢英小兒科 電光一九八七番

部員數名至急採用 中等學校以上卒業者數名採用ス希望者ハ履歷書寫眞郵送セ面會日通知ス 京城府黃金町一丁目 三井物產株式會社京城支店 三井生命保險部

特設 高等受驗科 九月十五日開講 ●高普科、中等豫備科 補缺生募集 京城府三角町八九(鍾路大廣橋) 公認 漢榮高等學院

陰萎・勃起不良・不感症 中井醫學博士創製・五大博士推奬 最新發明局○塗布藥 セープレピン (세ー부레ー핀)

適應症 陰萎・勃起不良 性感增進・生殖器短小 不感症・分泌減少症



發賣元 天醫堂 說明書贈呈 振替東京一九一二四番

外科 X光線科 醫學博士 鄭求忠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證據로는 優等生에 蛔虫업다

虫下劑 マクニン 마구닌 잘듯고먹기쉽다

위장병（속병체증）에대하야

◎급성위가다루（急性胃加答兒）

병은 폭음과식을하거나 음식중독（中毒）과 냉과열（冷過熱）음식도는써은음식을먹는일이만흔데 식욕이업서지고 기분이낫부고구역나고갈이나고가슴이아프고현기가나는일도잇고두통신열도나난다

◎만성위가다루（慢性胃加答兒）

음식을잘씹지안코먹는버릇으로나는일이만코술을과음하든지식후운동하든지불규칙한식사를하든지식후에마음이불편하야잘내려지어니하든지신경으로기질이약한사람에게만히도급성위가다루를잘못고치지아니하야나기도한다급성보다 고통은적으나 치료가힘든다 식욕이뭄시잇슬때도잇고 아조업슬때도잇고 러룽이항상나고가슴이빼근하고 변비증이생기고언제든지고단하고 빈혈증이되고몸이점점말너간다

◎위산과다증（胃酸過多症）

소화불량, 위괴양과함께나는병인데 위액（胃液）에 염산（鹽酸）이 너무만히서나는병이다 식후한시간후에 위가（가슴）몹시아푸고 쓰리고 웁직이 내릴때에 띄옥 오목가슴이 아푼증세이다 물론신물이올라온다

◎아토니ー（慢性胃弱）

위병은 위근육（胃筋肉）「밥주머니」에 힘이업서저서 나는병인데 보통위약이라고한다 속이시원하지못하다

◎위확장（胃擴張）

이병은과 음과식하는 관계로 나는병인데 밥주머니가 들어나서 커진병이다 가슴이항상더부룩하고아푸고 러룽이나고 웁식을토하는일이만코 허르징이 나서 암만먹어도 배부른줄을모르고 창증이생긴다

◎위하수증（胃下垂症）

위가아래로처저서 나는병인데 위의활동이 불충분하야 별별증세를 이르키다 위확장증과근사하며 조곰만하면 놀나고겁쟁이가되는일도잇다

◎위괴양（胃潰瘍）

이병은 속병중에 가장어려운병이다 위주머니가부르고진물는는병이다 음식을과음과식하고잘씹지안코먹든지 모래나뼈를삼기여 위가상하야 나는일이만타 또흥시 운동을하야나는 사람도잇다처음에는 식후가슴이조곰씩아푸고 음식을토하고 잇다금피도석겨나온다 심하면 피를만히토하는일이잇서서 기절한다

◎장가다루（腸加答兒）

원인은 위가다루와갓고배가팡상모만하고 배가끌코 설사가나고 배가아푸고 뒤를자조보고신열이나고 토사도하는일이잇다

◎변비증（便秘症）

항상배가 더부룩하고 식욕이 업고 정신이깨끗지안코 두통이 나고 몸이피곤하고 뒤가 언제든지자조하고 여러날뒤를보지못하고 치질이생기고 불면증이되야신경쇠약, 현기증이난다

◎신경성위약（神經性胃弱）

항상신물이오르나리고 음식을보면침이올나오고 입맛은업고공연히군것이먹고십고 가슴이쓰리고 소화가잘안되고 심하면아조입맛을잃케되야 몸이수척하게된다

효력최극상
세계에서유명한
「켸퀘ー」약제도만히들고신
발명한고귀한약이더욱만히
드럿담니다 약효제일

만일궁금하신이는 어상일쓰시와 특이성의체질（特異性體質）노병에안맛거나 광고와틀니는점이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특효가업거든 약을곳보내시요 청구하시는대로하여드리겟습니다

갱오ー의효능

만성위장가다루（慢性胃腸加答兒）
위괴양（胃潰瘍）
위아토니ー（慢性胃弱）
위산과다증（胃酸過多症）
위하수증（胃下垂症）
신경성위약（神經性胃弱）
급성위장가다루（急性胃腸加答兒）
식욕업는데（食慾缺乏）
소화불량（消化不良）
위확장（胃擴張）
위장병（其他胃腸病）

약갑 삼원 이원 일원
오래된데는 삼원짜리를 쓰시오

약은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당일로발송합니다
지방으로선금이면 십오전 대금인환엔삼십오전입니다

京城府西大門入口（제일고보신축양옥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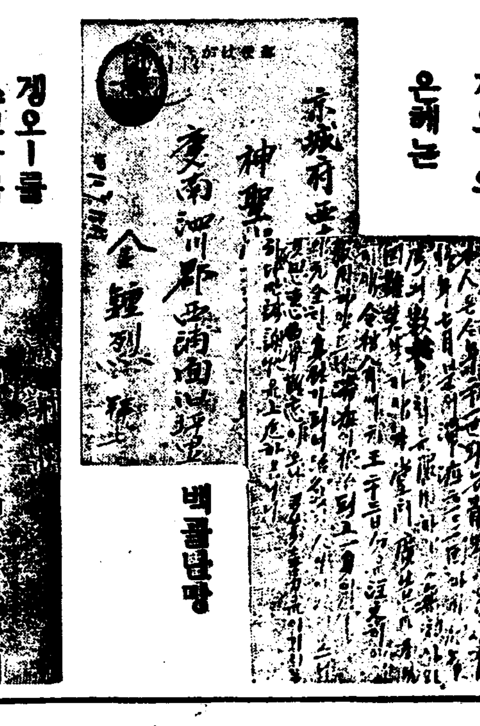
鮮滿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하로에천리길을번개갓치달니는기차（汽車）는엇지하야이갓치기운차게 다라는가? 발할것업시 기관차（機關車）의 힘이다 사람도소화기관인 위장이（消化機關胃腸）신체모든활동의원동력（原動力）이되는것이다, 위장이약하ㄴ너는진수성찬도 뜻에업고 몸이쇠약하야 만병의근본이되는것이다 몸이약하ㄴ신병이잇고야 세상것이다ー냇것이면무엇하며사회상에서 순활동을할수잇스리오 신외무물이오무병이장자라무엇보다도든든한위장이건강엔제일이다 위장병으로고생하시는분은약중에제일조흔『갱오ー』를쓰시오 몸을보하고 소화가잘되고 체증을물고위장을다시소생식히는고명한약입니다 답지하는이감사장이사실로위대（偉大）한약효를증명（證明）함니다

갱오ー를 쓰고

불과일주일에오래된체증이쾌차

갱오ー의 은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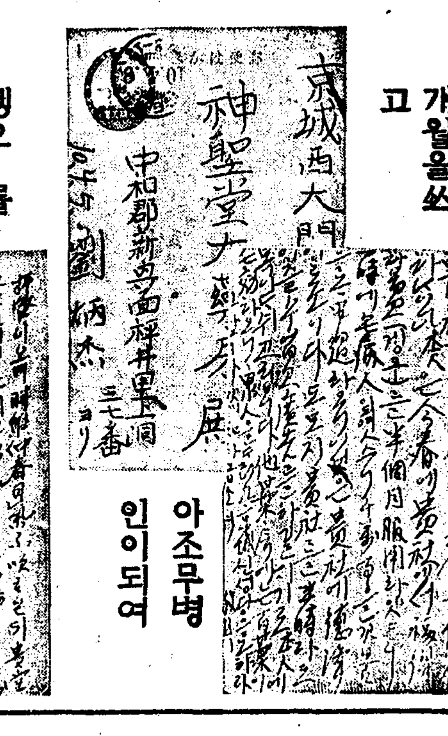


백골난망

갱오ー를 쓰고감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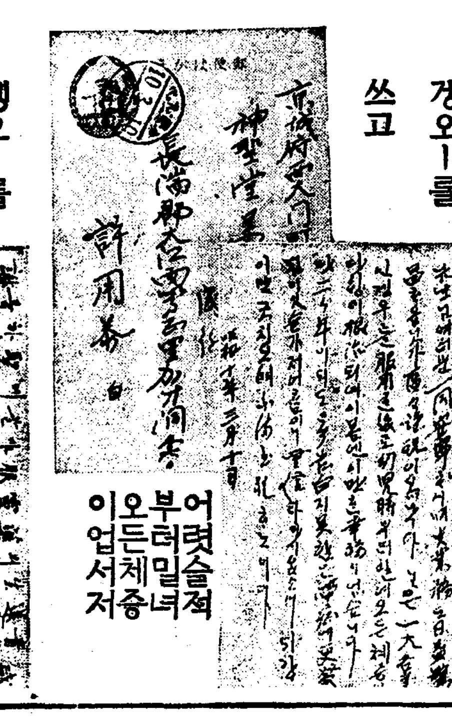
노래를지엇소

갱오ー반개월을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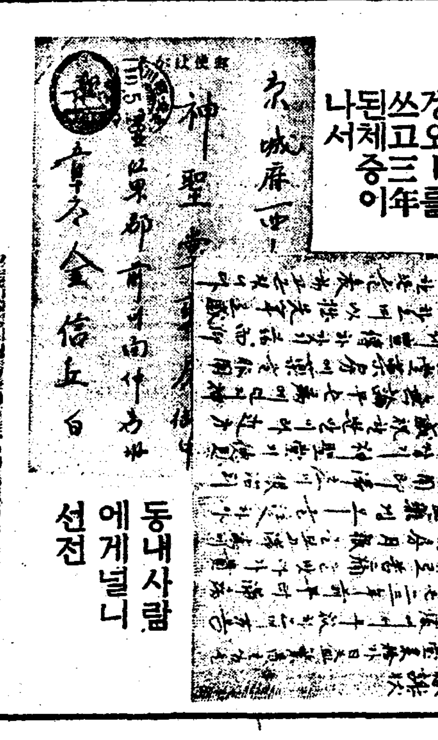
아조무병인이되여

갱오ー를 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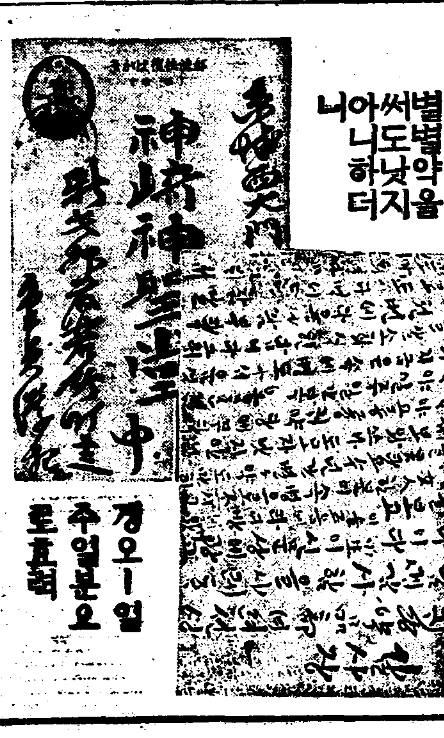
어렷슬적부터밀녀오든체증이업서저

갱오ー를쓰고三年된체증이나서



동내사람에게널니선전

별별약을써도낫지아니하더니



갱오ー일주일분으로효력

물마지 공론

머리끝 다리끝, 수시는데 약발나 안낫는 종기 피종 속아리 냉ㅅ병…… 병만 주서모아도 동상전을 버려노켓지요。 배아푼데 소합원、감긔끝풀에 패독산도 연때가 마저야효험이 나는게니「물마지」인들 안 그러켓서요? 우리야 병원에 갈래도 팔이 접나고 돈이 접나서 이런데를 오는데 뿌리는 안 빠저도 한동안은 시원스리 나어지니 신통하지요。 물마지도 맛는게니까 아푼줄 아시겟지요? 아니애요 밀 수제비가 구수하고참외 수박이 시원하고 오이지 열무김치가 새콤해서 이맛에 하지요

독서의가을! 눈과등불의관게

공부도조치만 눈먼저위할일
침침한불비체눈상한다

선선한가을!밤이기러젓스니공부하기조흔 철입니다 그러나독서할때는 눈에대한 위생을 주의하지안흐면 아모리 큰공부를하야 우등이된다 하더라도 아모소용업습니다 첫재 몸이재요 그다음이 아는것이니 공부를할때도 위생에주의하고 더욱독서를하면 즉접으로 영향밧는 눈의위생을 소홀히 하여서는 못씁니다。

눈이제일 실혀하고 피곤해지는것은 책과눈의 상거가 일정치안코 변동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상을향해 안즐때부터책과눈의 거리에대한 관심을 먼저가저야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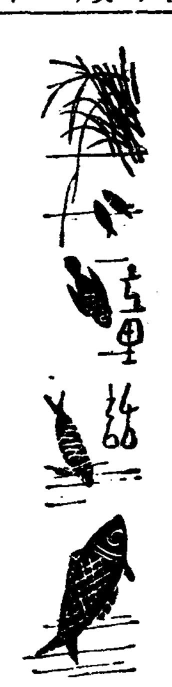
대개 책과눈의상거는 한자쯤떠러저잇스면 리상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일정한거리를 일허버리지안케하기위하야는 의자에거러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몸을기울게 가진다든지 엉덩이를뒤로 내여밀고 몸을 등골추모양으로 가지면 동배가 꾸부려저서 눈에대한해로움보다 뇌수와신경에대한 해로움이더합니다 자세가 균형을 이저버리고 눈과 책사이의 거리를 최정할수업게되는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밤으로전긔불미테서 공부할때 등불촉수와눈의관계도 아러두어야합니다、책글자를 비치여주는 불비치 너무강하여도 눈이상하지만 너무약하여도 눈에해롭습니다。

비치약하면 할사록자연눈을갓가히책에다 대이고 보는까닭에 근시의원인이 되여버리는것이니 보통전등촉수는 륙십촉의전등을 삼미돌바게 비처두고 책을보되 정면으로 비치는것이아니라 조곰여프로 비취는것이조흡니다 그리고 등ㅅ불은언제든지 왼손편에 두는것이 원칙입니다

그외에 이부자리속에 누어서 책을 한참동안읽지안흐면 잠이들지안는 습관을 가진사람이잇습니다 이러한사람은 배를땅에

童話劇 男妹 ③

金相德



아버지「여보 너무심하게 사실것무엇이요 심심하니깐 동무집도가고하지 어린애들이무엇아우ー고만둡시다 그까진일을가지고서……」

어머니「가만이좀잇서요 너희들배곱흐냐?」

정남이「녜。」

정순이「네。」

어머니「참안되엿구나 그런데집에는 먹을밥이잇서야지 저ー그런데너희들 배곱흔테 밥따러가자 아버지가 지금 너희들을 데불고가서 밥따주신다고 하섯다 나도 가려가서 만히따주마。

정남이「네ー정말입니까 아이조와라。」

정순이「아버지 정말이야요。」

아버지「그래 정말이다。」

정남이「그러치만 지금밤어잇나요?다ー떠러젓지。」

어머니「그러니깐 기픈산에 떠러진 밤을주으러간단말이야。」

정순이「아유 벌서밤이 기펏는대 터구나오늘밤은 캄캄한그믐밤이아니야요 난무서워요아버지 내일나제 가서요。」

어머니「그런줄테업는 말마러아버지도 가려가시는데 무어이무서워。」

아버지「정순아 내가갈러이니염여마라 꼭 데불고올러이니……」

어머니「무어이라고요 쓸데업는말슴말고어서산에 갈준비나하서요」

(아버지는 버서든 조고리를입는다)

어머니「어서갑시다 애들아 어ㆍ서나오너라 (나간다ー아해들도그뒤를따러나간다 아버지도 힌얼굴 슬프게울면서 나간다) 나가지만을고요히내린다。幕

第二幕 (마더잇는수풀속 비인곳이다。나무들이만히서잇다 막이열리면 남매는아리저리헤매이고잇다)

정순이「옵바 어떠케하우 깜깜해서 길도안보이는테 집에도 못가겟네」(운다)

정남이「정순아 우지마라 곳아버지가 오시겟지 저달이 떠오를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아버지가 안오시거든집에테리고 갈게 우지마라」

정순이「저달이 떠오르도록 안오시거든 집으로가 옹」

정남이「그래 념려마라 내가테리고갈게。」

정순이「옵바 그런테 무어이부스럭 부스럭 하는소리가나우 아이낫부서워」

(바람이불며 나무들이 흔들린다)

정남이「정순아 옵바가 여기잇는데 무어이 무서우냐 아버지는밤을만히 주시느라고 이러케 늣게안오시나보다 왜? 예까지 데리고 오서서 밤나무잇는대까지는 데리고가지안코 혼자만 가섯슬가?이무서운데 남겨두고…너ー퍽배고프지」(정순이를보며。)

정순이「옵바가 배가고파 아주몹시곱흐니 어떠케해ー。」

정남이「자ー기운을차리자 그래 아버지가 차자오시겟지。」

정순이「옵바 배도곱흐지만 다리도 어찌아프지 몰라 그리고 또졸려서 죽겟서ー잣스면 조켓는테 산속에서 자다가 무서운 즘생에게 죽게되지안흘가 옵바。」

정남이「나도잣스면조켓다 여기는무서운즘생들이업슬거야 우리여기서자고 내일날이 밝거든 집에갈가 지금달이 떠온다고 하드래도 길을잘찻을수가 업스면 더고생만하지 안켓니」

정순이「그럼 자고 날이밝거든 갑시다 옹。」

정남이「그래 그러케 하자。」

(남매는수풀속에누어잠을잡다 무서운줄도모르고 꿈을꾼다 잘흔지얼마만에 날이밝어온다 바람부는소리에 잠을깬다)

정순이「아ー벌서 날이밝엇군그런데 여기가어데야。」

정남이「아ー참배가 몹시곱흐다 나는인제기운이 하나도업구나 아버지는 아직도 안오시는구나。」

정순이「옵바 배가곱흐면 버섯이라도 좀따먹을가。」

정남이「자ー기운을차려라 그리고 길을차저 가보자 옹어서」

(이러난다)

(이때 어데서인지 새소리가난다)

정순이「옵바 어데서 새소리가나우」

정남이「참 새소리가난다 어데보자(사이) 얘정순아 하ー얀새가 한마리 저기저나무에안저서 울드니 지끔 다른나무로 날너가버린다」

정순이「우리 쫓차가볼가」

정남이「그래 얼른오너라」

정순이「옵바 아버지가 입때까지 안오시니 아마 새어머니가 우리를 내쫏찻나보다 그럿치옵바 그런데 저기저것이무엇이요 저것이 아마집인가보아이런곳에도 집이잇나?어적게는 깜깜해서 못보앗나보지……」

정남이「아ー참 집이잇다 자ー가자」

아이구 이집은 이상한집이다 아ー처음보는집이다 최ー다과자로지엿다 집웅은카스테란야 창은어름사탕이테 정순아 어서 이리와봐…벽은「초코레트」고 칭칭대는 복숭아고 아주이상한집이다。

이건 한심한 노릇! 쉬 늙는 현대 사람

의식주가 넘어인공적인것이 탈
음식부터 편식은금물

현대인들은 옛날어른에 비하야 확실히 쉬 늙습니다。옛사람은 오십이나 륙십줄되야서야 비로소 나타나든 로쇠의현상이 현대인에게서는 삼십만넘어도 벌서 나타나게됩니다。아니 그런데 그 로쇠의 현상이란 무엇을가르키는것이냐하면、첫재 머리가 히어지는것、둘재 안력이부실해지는것、셋재 혈압(血壓)이 항진(亢進)되는것、넷재 동맥(動脈)이 경화(硬化)되는것등을가르키는것입니다。새파라케 젊은 사람들에게 벌서 이중의 한두가지현상만 나타난다고하면 그의능률을 주리고 활동력을 감하야 그자신의 장래로 커다란 불행을 의미하는것입니다。도대체 그 무슨원인이겟습니까? 그 원인을알아서 제거하여야 아니합니까?

문화가 노파 갈사록 먹고 입고 거하는데 즉 의식주(衣食住)에 모든 것이 인공적으로 되야 버리어 그전과가리 사람의 활동이나 참을성을 요구하는 점이 적어 듭니다。거긔 딸아서 사람의 신체에는 점점 자연에 대한 저항력(抵抗力)이 줄어 드는 까닭으로 부지중 약해 지는 것입니다。그중에도 먹는 것이 신체와 제일 큰 관계를 가질 것은 물론인데 그역시 그저맛잇게하고 보기조케 하는 본위로 들아 가서 실상 영양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안케되고 마는 판입니다。위선 자연의재료 그대로가장 자연스럽게 맨드는것 가튼쌀밥도 내용상으로는 여간부자연한 것이 아닙니다。쌀밥에서는 아조 적은 분량의대백질을 제한다음 그저전부 함수탄소(含水炭素)뿐이지 그이외에아모 것도업습니다。

고기도 아모리 조타기로니 그것만을 편벽되이 먹어서야 되겟습니까? 우리의 신체를 유지해가는데는 이런것도 필요하고 저런것도 필요한 것인데 그중의어느 것만을 편식하여야 씁니까

×

쌀밥과 고기반찬에 사람들이녹습니다。일족이 로쇠하야지는데는 그러한 영향도 적지안하리라고 보입니다。본래 영양소에는 광물성(鑛物性)의 철(鐵)이라든지 린(燐)이라든지 동(銅)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여간필요한 것이 아닙니다。더구나 보충영양소로서 비타민이 얼마나 필요하다는것은 다시 두말할것도 업습니다。그런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먹는다는데서 얼마나한 영양소를 업새서 버립니까? 즉 쌀을하아케 찌어먹는바람에 만흔영양소가 업서지고 실과도껍질을 벗기어업새는바람에만흔 영양소가 업서지는등의 예입니다。그러타고 지금 우리들이 어떠케 옛야만시대의 조잡한모양으로그저 무어이나 토막도 맨들지 안한채 그대로마구 먹을수야 잇습니까? 그러케 청구하는것은 물론 무리지요만은 그대신 그만한 영양을 보충하도록 채소라든지 동물의 내장이라든지 그런것을 먹어 두어야 합니다。

×

그 뿐이아니라 공긔라든지 일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다 영양이잇습니다。하여튼 모든것이 넘어 편해지는것은 좀 생각해볼문제입니다

밥먹기전 한개 당장 식욕이 난다

약에도쓰는파실게의녀왕
사과는인끼대인끼

사과는 맛이조흘뿐더러 영양가치가 풍부한 과실입니다 평상시에 늘먹는것도 조키는하나 음식먹은 뒤에 한개식 먹는것은 더욱조흡니다 조선가정에서는 이것을 아침저녁으로 밥상머리에서 먹는습관이 업고 사실먹을만한 형편이 되지못하야 못먹으나 외국사람들은 이것을 무슨선약가티 생각하고 반듯이식후에는 한개식 먹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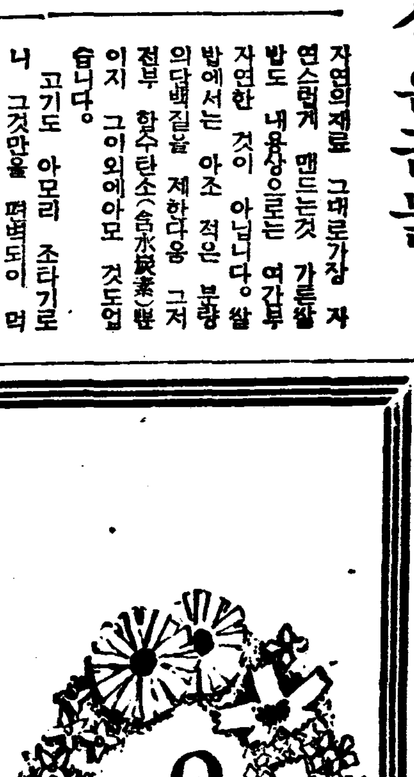
대개식후에먹는것이 조흔줄알고잇스나 미국가튼테서는 아침은 식전에먹고 저녁에는 식후에 먹습니다 첫재식후에 먹는리유는 사과에는 사과산、주석산등이 들어잇는때문에사과가 가지고잇는 신맛을리용하야 식욕을도읍고 소화선을자극하야 소화액의분비를 증대시켜서 소화긔관의 활동을 도읍는 까닭입니다 그외에니를 잘 씻처내는 소독작용을 하며 둘재로 식전에먹는리유는 사과속에 들어잇는「비타민」에、씨와 포도당 과당등을 효과잇게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케 하기 위하야는 공복에 흡수력이 제일강함으로 식전에먹는것이 조흡니다。

사과는 량약이라고 하나 그원인은 여러가지로서 자세히알수업스나 사과즙속에잇는「탄닌」질과 과실산으로 변한섬유소 교소등의 흡착설이잇스니 아마 이효력이 강하므로서 약이되는지도 모릅니다 사과를 먹어서 조흔병은 첫재 소화불량、혹진、폐염、감긔중에 신효하며 리중과중독중에도 특효가 잇습니다 먹는대는 껍질을 벗기지말고그냥 지근지근십어서 물늙짜먹는것이 제일리상적입니다 웨그러냐하면 사과도 다른과실과가티 가죽과살사이에 잇는연한부분이 영양가치가 제일입니다 어린아이나 병자에게 먹이는데는 심과거죽을 버리고살을강판에 문대어 우개서 하로세번식 한번에 어린이는 백그람 어른은 삼백그람식을 논아먹이면 적당합니다

이래보여도 정말기차가대

최근 미국메인주「엇스포ー드」의교외에서 개최된 긔관차모형경긔대회는 전미국의 인기를 집중시켜서 경긔에 삼십여의모형이 참가하엿는데 사진은 그중에서 우승한「유ー진、스조베」씨 출품의 긔관차。모양은 적어도 장치가완비되여서 석탄을 때면 꼿찰다러난다하며 그것 만들기위한날자는 약이개년이걸리고 비용은 오천여원이나드럿다고합니다

우리차지



〃들녁새〃

사람들도 잠잘때
일광문을 푹,푹,거러 장군다。
들녁새는 편ー한들력,
부헝이는 불을 써들고
부ー헝 부ー헝
울어내는데,
들녁새는 편ー한들력,
어디서 자나。

(글쓰신분 오장환)

海外토픽 미국명물또하나

세계대전에 출정하엿던 미국재향군인으로 대전이후십오년동안아즉 터세를 한푼도내여본적업는사람이잇답니다 그의 일홈은「토ー니、라ー하며 번지가어되냐고물으면 그는「르레드」노후편국것이라고 대답한답니다

이사람은 일은 미국땅에 살면서 엄청나게 빗싼 터세를낸다는것은 무리한일이라고 주창하면서 자긔주장을 세우기위하야집을 세우는대신에 배를만드러서「르레드」지근처의모ー마ー라는 강우에 떠우고 큰줄로붓드러매여서 떠나려가지안케하야처자는물론개、닭까지 배속에서기르며 십오년동안이나 사라왓답니다 그동안 그가 고기라고는전부낙시질로 잡아먹엇소며고기강시라고는 한입도 들지안헛답니다 그의 아들은 소학교에단이며 요사히는 우편물도 우편국거치가아니라 곳잘배달해주도록 되엿슴으로 부근에서는한명물로알여저잇답니다

배는방이세이나되는대 가구며 그릇가튼것도 아조멋쟁이만 가지고잇답니다

★曆★

九月十五日(火) 丙申七月大(三十日) 庚子·土·實·平

●祭祀에宜함
●處暑二十三日(舊初七日)
●白露九月八日(舊十三日)

家庭医案 肋膜炎서 肺結核에!

肺患의約四分의一은肋膜炎에서移行
肋膜患者의半分은三年以內에肺結核

肋膜이란것은肋骨의 內側에肺臟全體를싸고잇는 二重의膜으로그 二重의膜間에炎症을일으키며或은물(滲出液)이괴이거나하는것이肋膜炎입니다前者의炎症뿐인것을乾性肋膜炎 後者의물이고이는것을濕性肋膜炎이라부르고잇습니다。잘아지못하는사람으로、濕性肋膜炎이라부르고잇습니다。잘아지못하는 사람으로 濕性의것은結核性이아니라든말하는사람이잇습니다만 그런것은

極히少數인때이고

大槪는滲出液中에는結核菌이證明됩니다。

따라서 肋膜炎은 乾性濕性에 關係업시거진大部分이結核性의것이라고생각하여조코 그證據로는肋膜炎에걸린者는얼마아니잇서서 肺結核으로되는者가大端히만타는것입니다。國館療養所의伊藤博士의 調査에依하면 同療養所에잇서서 患者七百九十五名中肋膜炎을經過한者百八十名으로 全體의約二十三%에 當하는高率을보이고 더군다나이百八十名中에서는 八十名의死亡者를내고잇습니다。

이러케 肋막炎과結核과는密接한關係가잇는것이지만 다음에 肋막炎經過者가가장結核을發病하기쉬운것은 언제부터인고하면

一年以內의發病

한者가約三六%로가장만코兩後三年까지의사이에그의半分은肺結核으로되고五年以後에도 또二五%쯤은 結核에걸립니다。

그래서肋막炎經過者는 一年부터三年까지의사이는 結核에對한充分한注意를하는것이必要하야過激한運動을禁하고 감긔나胃腸病을警戒하야抵抗力의增强에힘쓸것입니다。

거긔다肋막炎에걸리면벌서肺臟의結核性病變이생겨서도 肋막의滲出液에숨겨저서 聽診으로서도잘알지못할때가잇스므로 될수잇는대로 빨리이病變을發見하야 手當도一層注意를하지안호면아니되는데 여긔에肋막炎後의 經過를良好케하야 또한結核의治癒를 빨리하는데適當한藥이잇습니다。

一般에胃腸榮養藥으로알리저잇는「錠劑わかもと」로서、이藥에는胃腸을비롯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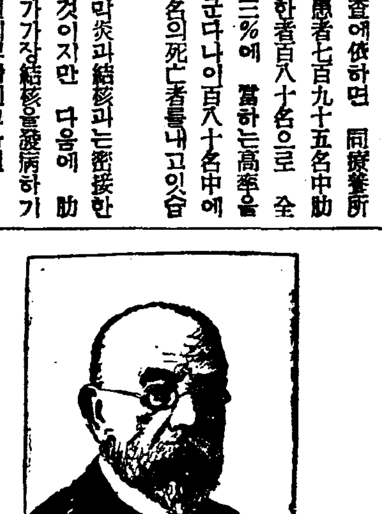
全身의衰弱細胞

를도와、機能을活潑케하는十數種의酵素、及全身榮養을佳良케하는脂肪、蛋白아노미酸、카르슘等의榮養素나 其他리파ー제라고하야結核菌의被막을溶解하는成分、누크레인이라고하야 白血球를增殖하는成分、新陳代謝를잘식히는비타민B와가튼 成分도豐富히 包含되여잇습니다。

따라서榮養이充實하야저서、體力抵抗力을强케하고、또病原菌에對하야서는 이것을殺滅하는溶菌等의作用도잇스므로、結核의進行을막고 治療를促進시키는고로 여러가지效果가期待됩니다。特히普通사람이라도榮養이衰退해、抵抗力의減退하기수운이때、肋膜結核患者에게 다가티勸告하고시픈藥劑입니다。

夏 衰弱을重케하는 結核患者의食慾不振

自然히食慾을돗게하는微生物의發見★



結核菌發見者코ツホ

「잘먹는 病人은낫는다」——는 結核治療에經驗잇는 醫師가잘말하는말입니다。

잘먹는다는것은 卽食慾의活潑을意味하는것으로 하로세끼의 充實한 榮養攝取되

◆食事 가맛잇게攝取되면은榮養도自然充實하야저서病도恢復으로向합니다

그러나炎暑가심한요사히는 一般사람들도 食慾이減退합니다만特히結核患者는 結核菌毒素의刺戟及 新陳代謝의異狀으로 一層消化吸收機能이 不活潑하게되여食慾이減退합니다。그로해서榮養分의攝取가不足하야 病勢를進行시키고或은衰弱해서다른病을併發할危險이잇스므로 여름의 結核患者는 힘써胃腸機能을 鼓舞하야食慾을 喚起하도록 하는것이肝要합니다。

◆補助 以前에는 이런때에는 지아스타ー제其他의 消化劑、或은苦味劑等을써서 胃腸機能을 하고或은 消化液의分泌를促進시키는 方法이行하고잇섯스나이런것들은結局一時的作用에不過하고、더구나結核患者의食慾不振은毒素作用에基한것이므로이러한對症療法만으로는 障碍가除外되지못합니다

이것을 고치려면、結核에도胃腸에도 有効한藥이아니면 아니되나、그目的을到達하는藥으로서最近에ー캐라는微生物을活性그대로藥劑로한「錠劑わかもと」를服用하는이가多數하게되고잇습니다。이藥에는、人體內에서分泌되는消化液의活動을도읍고、同時에結核菌毒素를 解毒하는 酵素와、호르몬等이 豊富히包含되여잇스므로生理的으로消化를促進、食慾을喚起합니다。

또한藥으로는、結核菌의 毒素를 溶解하는成分과 全身細胞에賦活하야 機能을活潑히하고 特히白血球를增殖하는等의 作用도잇서서 結核에對하여도積極的治療作用이잇습니다。

그러니까在來의對症藥으로신통한

◆効果 를 거두지못한結核患者는이藥을服用하여봄이 必要합니다 이것에依하야肺結核의症狀이輕快하여저胃腸機能이活潑히活動하는結果、自然히食慾이增進되는것이니 如何가重大한 役割을 다하는結核病者에게 療養上新生面이開拓되엿다고 할것입니다。

이「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大門內際、わかもと本舖榮養과育兒의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三百錠入、千錠入의二種이一日分겨우五、六錢(小兒에는一二錢)의 廉價로發賣되고잇습니다。

食慾이돗고 體重도增加

(釜山) 大□□太郞

나는四年前京都에서肋膜、肺炎의病하고 病에걸려가지고 療養하야 退院하면서 體質强壯劑와消化劑를服用하엿스나、도모지잘낫지안코、기침、盜汗、咳氣가는것이작고나서 나중에는食慾不振하여날마다惡化하야 步行도 困難하게되여病床에눕지안으면안되게되엿습니다。요사이、이웃의友人K君이오래간만에歸省하야 놀나서나의病을問安하야 그런病이면한번「錠劑わかもと」를 服用하여보면 어떠하냐고 熱心히勸하므로 그러면한병만먹어보겟다고 服用키始作하엿더니 二三日은効果를認定할수업섯스나 그리는 동안아지못하는사이에 便通도氣分조케 하로에한번식 通하게되고 同時에食慾도增進하야저서 그러면하로두병세병이러케服用하는中에 。(中略)그以來나는「錠劑わかもと」는 十貫밧게아니되든體重이 점점늘어갓습니다 相當히健康體가되지금도 常備藥으로서 每食後六錠식服用하고잇습니다。

肺結核の治った療養食法

のんきなひと
中島菊夫(文並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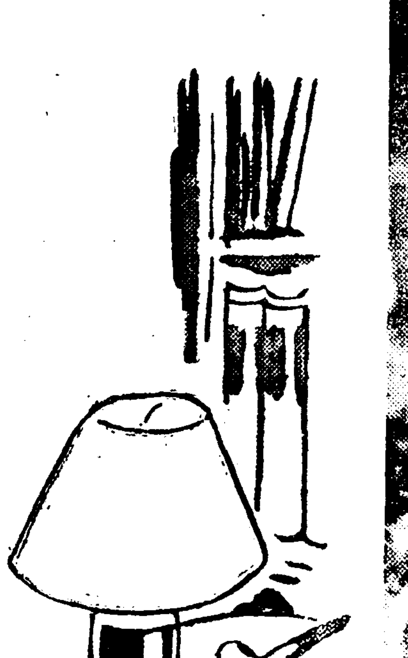
掛圖寄贈 引換券을活用하라

『わかもと』에添付한引換券을小學校에寄附하시라、券을보내신小學校에다평장한教育掛圖를寄贈하여드림

東京芝公園十一號地 教育資料會

——이슬도무거워——

學藝



語原考證數題

古語에남은現代的意味 ④

梁柱東

그듸

平交間의 第二人稱代名詞「그듸」는 古書에『그듸』『그듸』「그디」等 여러가지로 적혀 잇다。

그디 子息업더니 뭇罪오 (月印一·第七葉)

生生애 그딋가시 ᄃᆞ외아지라 (同上·第十一葉)

그디와 歡樂호ᄆᆞᆯ 다ᄋᆞ노라 (燕君歡) (杜詩卷十一·三十二葉)

그듸는 웃디말라 (君莫笑) (同上、第四十葉)

그듸 던조ᄅᆞᆯ 비반거니 (公乃貧天子) (三綱行實·演芬條)

그딋돌ᄎᆞᆫ마리 너기시고 (以公爲股肱) (同上)

그러면 이말의 原形과 語原은 무엇인가。爲先『그디』는 結合하여두고 『그듸』『그듸』의 『·듸』가 『處所』의 義인것은 容易히 알수잇다。

도ᄌᆞ기 겨신ᄃᆡ 무려 (龍歌六十二章)

님금겨신ᄃᆡ 사ᄅᆞᆷ브려 (使客到行在) (三綱·演芬條)

그런데 前間氏는 진작부터 그의名著「龍歌故語箋」에서 『듸』란 말의 語原이 『ᄃᆞ』인것을 論破하엿스니 (該書九七頁)、이것은 確實히 卓見이다。이『ᄃᆞ』는 本來處所를 意味하는 抽象名詞로、同氏는 實例를 들지안햇스나、左의 一條는 그確證이 될만한 貴重한 材料다。

하ᄂᆞᆯ해서 飮食이 自然히 오나ᄃᆞᆫ 夫人이 좌시고 아모ᄃᆞ 라셔 온ᄃᆞᆯ 모ᄅᆞ더시니 (月印二·二十五葉)

이 前文中의 『아모ᄃᆞ』는 곳『아모ᄃᆡ』의 原形으로 『何處』의 義이다。

『ᄃᆞ』는 여러가지 助詞를 부처서 一見 그本形을 聯想하거 어려운 여러 말을 만든다。卽 『己』를 加하면 後世에 『줄』로 變한 『ᄃᆞᆯ』이 되고、『ㄴ』을 加하면 『ᄒᆞ기ᄃᆞᆫ』『ᄒᆞ논바ᄃᆞᆫ』의 義인 『ᄃᆞᆫ』이 되고、『ㅣ』를 부치면 『ᄃᆡ』가 되고、主格助辭 『ㅣ』를 더하면 『아ᅀᆞ』(弟)가 『앙이』로 되듯이 『듸』로 變한다。

因緣이 니근ᄃᆞᆯ 아ᄅᆞ시고 (月印一·五十葉)

館州ㅣ 어딘面目인ᄃᆞᆯ 아ᄅᆞ리라 (蒙山法語)

말리ᄃᆞᆯ 몯ᄒᆞ야(不能止) (三綱行實·薛包條)

願ᄒᆞᆫᄃᆞᆫ 내 生生애 그딋가시 ᄃᆞ외야지라 (月印一·十一葉)

나아오더뎬 목숨기드리잇가 (『뎬』은『더』엔의略) (龍歌五十一章)

나와ᄒᆞᆫ야 ᄒᆞᆫᄃᆡ 일하얀디 오라니(與我共事久) (三綱行實·薛包條)

上揭 諸例를 仔細히 考究하면 그것들이 모다「곳」의 바뀐것을 意味하는 「ᄃᆞ」一語의 變化임을 알것이니 『ᄃᆞ』는 漢字로 譯하자면 바로 『所』字에 該當한다。

以上說明으로써 『그듸』『그디』의 原義가 『그곳』(其所)임을 알것이다。卽 相對方을 直接으로 부르지못하고 『그곳·그편·그녁』이라고 婉曲히 呼稱하는것이니 저「ソナタ」「ソチラ」는 이와 全혀 同一한 語法이다。「그ᄃᆡ」語原에 主格助辭「ㅣ」를 부쳐면 맛당히「그디」라야 할것이니、主格으로 쓰라면 月印과杜詩의「그디」가 古語法으로는 精確하다할것이다。

『어듸』(어ᄃᆡ·어디)가 『어느듸』의略、卽 何處의 義인것은 이제 再言할것도 업다。

씨

製는 지을씨라 (訓民正音)

希는 드믈씨라 (圓覺經)

爲는 ᄃᆞ외야겨실씨라 (月印)

此等 許多한 用例를 按하건댄 『己씨』는 現行語의 『때』는 봅입시 분명하다」는곳이 피엇슴시 분명하다」와곳같은것이니、「己씨」는言接合되여 잇으므로 「씨」만을 떼여서 쓸수는 업으나 分析的으로 「씨」란말의 本來의 槪念을캐자면 一種의 抽象名詞로 봄이正當할것이다。(古文獻中에는혹「己씨」라하야 ᄅ시옷을 略한곳도 잇다。)

그런데 周時經氏以後 여러學者들이 거의 모두 「씨」를 『品詞』란 말로 解하야 名詞、動詞를 「임씨」「움씨」……云云함은 어찌된 일인가。흔히 한글學者들이 著述한 文法書其他에 幾多의 朝鮮語아닌 造語가 잇서 쓸데업시 讀者를 眩惑케하거니와 「임씨」「움씨」「끗씨」乃至「씨갈」의 씨곳等等에는 杜撰의 甚한者이다。혹『말씨』『말씨와』『씨를』云謂할는지 모르나、그경우의『씨』는 『種·根』의義이어『씨』의 名詞化한것이니、이와는 相關이업다。元來 上記『己씨』의『씨』는 從屬로 떼여서 獨立한 一詞로 使用할수 업는것일뿐더러、本論한 나로서는 郞大體이『씨』란말이『品詞』의 뜻으로 使用된 一例도 文獻上에서 보지못하엿다。그方面學者의 · 與教잇는 敎示를 기다린는수밧게 업다。(完)

白頭山探險의科學的成果

白頭山에잇는 昆蟲의分布狀態 ⑤

金秉河

Pieridae 粉蝶科

粉蝶科에 屬한 種類가 朝鮮産만 二十種이 나되는것이다。

1. Pieris rapae crucivora (Boisduval) モンシロテフ (우리말로는 배추버레나비) 『점배기하얀나비』라고함) 朝鮮普通十字科植物에서 發生하는 種類으로 朝鮮은 말할것도업고 日本內地全土、滿洲、西伯利亞、歐洲亞弗利加 亞米利加로 世界에分布되어잇다고 볼수잇는同時 朝鮮에잇서 鬱陵島에는 업고 中國에는 類似種이 有한것으로 白頭山에 잇서는 無頭峰을 지나 定界碑附近까지 잇는것이다。

2. Pieris melete melete (Menetries) スヂクロテフ『우리말로업슴』 朝鮮全道에 다잇고 滿洲中國 西伯利亞、歐洲、日本內地等地에 分布되어 잇는바 白頭山에잇서서는 神武城下 武峰을 中心으로하야 多産이것이다。

3. Leptidia amurensis amurensei (Menetries) ヒメシロテフ『우리말로업슴』 朝鮮에잇서 全般的으로 分布되어다볼수잇는 同時에 鬱陵島에는 産하지안코 中部朝鮮以北에 多産이라고 할수잇다 臺灣에는업고 滿洲와 西伯利亞中國等地에도잇고 朝鮮으로는 白頭山을 中心하야 咸鏡南北道의高原地帶에는 우굴우굴하는바 無頭峰 附近까지 分布되어잇다고 볼수잇다。

4. Aporia hippia hippia (Bremer) ミヤマシロテフ『우리말로업슴』 朝鮮에 잇서서는 中部朝鮮以北에만 産한다고 볼수잇는바 白頭山을 中心으로 高原地帶에 多産이라고 할수잇다 滿洲와 中國及西伯利亞에分布되어잇고 日本內地本土에는업고 다만 北海道에만잇슬뿐이다 白頭山에는 農事洞과武峰으로 中心삼아가지고 多産이라고할수잇는데 神武城과無頭峰間에서도 數首를採集하엿다。濟州島와 鬱陵島에도 勿論업다。

5. Leptidia amurensis morsei (Fenton) エゾヒメシロテフ『우리말로업슴』 이것도 中部朝鮮以北에만 잇는것으로 白頭山을 中心하야 分布되어잇슬뿐이다 北海道에도잇고 日本內地本土와 中國、西伯利亞에도 類似種이 有할뿐이고 滿洲에잇서도 白頭山附近方面에만 産하는것이다

6. Aporia crataegi crataegi (Linnaeus) エゾシロテフ『우리말로업슴』 白頭山을 中心하야 朝鮮으로는 中部地方까지 分布되엇고 滿洲、中國及 西伯利亞까지 散布되엿는데 臺灣과 日本內地에는업고 勿論 朝鮮에잇서도 濟州島와 鬱陵島에업다 無頭峰까지잇고 咸鏡南北道高原地帶에는 多産이다。

7. Pontia daplidice (Linnaeus) チウセンシロテフ『우리말로업슴』 이것도 白頭山을 中心으로朝鮮에는 中部朝鮮以北에 만잇고 滿洲와 西伯利亞 中國에는 勿論이고 樺太와 歐洲에도 分布되어잇스나 日本內地에는 업다 白頭山에는 咸鏡平安南北道高原地帶로부터 武峰과 神武城附近까지 散布되어잇다。濟州島와鬱陵島에는 産出되지안는다。

8. Colias aurora (Esper) ベニモンキテフ『우리말로업슴』 此種은 朝鮮에잇서서는 白頭山에만 有하다 西伯利亞에 有하고 滿洲와 中國及 日本內地 北海道樺太도업고 濟州島와 鬱陵島도업다 그럼으로 얼는말하자면 白頭山特有種이라고도할수잇다 白頭山麓下에잇는데 그다지 多産이라고할수업고 神武城과 無頭峰間에서 一首를 採集하엿스니 無頭峰까지 잇슬듯할수가잇다。

9. Colias Poliographus (Motschulsky) モンキテフ『우리말로업슴』(장다리꽃노란나비라고함) 全世界共同的으로 分布되어잇는 蝴蝶인데 朝鮮에도 處處에 多産이다 白頭山에서도 無頭峰以上까지 分布되어잇는것이다

10. Gonepteryx rhamni amurensis (Graeser) アムールオツネンテフ『우리말로업슴』 此種도 白頭山特有種이라고할수잇다。白頭山을中心으로하야西伯利亞까지 分布되어잇다고할수잇는데白頭山에잇서는 此種의幼虫이『들쭉나무』의 닙플먹고 成長하니 만큼 들쭉이만흔 地帶에 有한바 그다지 만치안타고는할수업다。

11. Gonepteryx rhamni amurensis (Graeser) アムールヤマキテフ(「노란나비」) 半島에는 全部잇다고보겟는데 濟州島와 鬱陵島에는업고 滿洲及中國에도 有한바 白頭山에잇서서神武城과 無頭峰間에서 採集하엿다。日本內地本土西伯利亞 臺灣 北海道 樺太에도업다

Satyridae 蛇目蝶科

1. Satyrus dryas bipunctatus (Motschulsky) ジヤノメテフ『우리말로업슴』 中國과 臺灣에는업고 滿洲와 日本內地까지잇스며 朝鮮에도全體에 分布되어잇다 濟州島 鬱陵島에도 勿論잇고 白頭山에는 神武城以下에多産이다

現代思惟의 現實的形態

●金基錫

現代의 思惟는 그자신이 엇던性格을 가진다。希臘的 思惟또는 中世的 및近世的思惟로부터 自己를 區別하는 엇던性格을 가진다、모도를 生成에 잇서서 運動에잇서서 보려는 한개의思惟態度、이것이 現代의 思惟가 가지는 根本意表가 아닐가。

엇던한 時代에잇서서 사람들은 存在의 論理에잇서서 世界를 理解하려고한다。이때 그들의 思惟는 대개로 固定한 觀想에 잠긴다。다른한時代에 잇서서 사람들은 生成의論理에잇서 現實을 說明하려고한다。이때 그들의思惟는 무난히 세찬 情熱에 흐른다。現代에 이르러 사람들이 思惟에대한行動、理論에대한實踐、觀念에 대한 現實을 엇더케高調하는가를보라。現代의사람들을 사로잡은 이한개 크다란 情熱은 우리들에게 무엇을가르치는가。運動에로 運動에로。이現代의 思惟의 거센 傾向을보면서 엇던이들은 思惟의 喪失을지저귀한다。

그러나 現代의思惟는 분명히 思惟그自體의 喪失、止揚을 가저오는것이가。思惟보다行動을노피고 理論에압서實踐을 觀念에압서現實을 내여세우는것이 思惟또는哲學의喪失이아니고 도로혀 그자신 한개새로운 思惟態度및哲學態度가아닐가。

이生成의論理、運動의論理에잇서서 우리들은 現代의 思惟의 基本性格을 規定하지안허서는안된다。

사람들은 人間의思惟가 그時代의現實을 地盤으로한다고 가르친다。그런데 이이른바 思惟의地盤으로서 現實이란 엇던것일가。그것은 어느意味의 人間외環境가든것이되어야한다。사람들이 그속에서 나고 살고또죽는 現實的世界가되어야한다。

人間의環境으로서의現實。이것은、單純히自然에 그치는것이아니고 自然과함께 思惟를 人間의思惟를 그속에 가저야한다。이때 自然이니 思惟이니는、무른 가튼客觀性 가튼存在性에잇서서 한개環境으로서의 實現을 構成한다。엇던 한時代의現實이 그時代의 사람들에게 주어질때 自然이 단순한 自然으로가아니고 理解된 自然으로 주어지는것은 現實이 이自然과思惟의聯關에잇서서 構成되는때문이아닐가。

現代의思惟의 運動性은 무튼 現代的現實이 가지는 動搖、混亂、矛盾에 反映한다。그런데 이現代的現實은 단순한 客觀的自然에그치지는안는다。自然과마조서는人間。이人間의 人間및 自然에대한 思惟와關聯、이것을때여노흘때 現代的現實은 人間의環境으로서의 意味를 喪失하면서人間과는 아모런 交涉도업는 한개 단순한 自然의 世界에 구궤떠러지게된다。

現代的現實은 부단히 現代의思惟를 規定한다。그런데 우리들은 이現代的現實속에 現代까지의 人間의思惟가 드려잇음을 보앗다、여기에잇서서다。우리들이 現代의思惟의 運動性 情熱性을 現代的現實의 地盤우에서 특히 現代까지에 흘러나려온 人間의 思惟와의 聯關에잇서서 더듬으려는것은。人間의思惟는 그것이 다른一切의存在에서 보이는것과가티부단한 流動 轉變을經過한다。오늘의 一部의사람들은 人間의思惟라는것이 부단히 그振幅이넓어지고 그流床이 기퍼지면서 그자신 한개의 發展의體系를形成한다고말한다。그러나 이때 그들은 모도들 發展의論理에잇서서 보아마려는 한개 구차한 見解에 붓잡혀떠러지는것이아닐가。그러타고해서 몃千年乃至몃萬年에 뻐친 人間의思惟가 단순히 顚落에로의길을 밟어왓다고 옥여서는안된다。●

때로 激流에 자어치고 때로 滯地에 모히면서 奔放 停滯또 正變、이리하야 光明의뒤에 暗黑에싸히고 發展을지나 傳統에 얼매이면서 久遠한 混迷懷疑、波瀾을 거처 오늘에 이른것이 아닐까。『칸트』哲學을『플라톤』哲學의 繼承으로 『헤-겔』主義를 『칸트』哲學의 發展으로、나아가 오늘의 現實主義를『헤-겔』主義의 發展으로 본는것은 분명히 한개 存在로서의 人間思惟에대한 크다란 過誤乃至誣告가 아니면 안된다。

一漢詩一

『蓮』=押心

桐岡 考選

佳作二之二

韓斗淵

執使仙妃綠水臨
依然雲錦漾波心
朱華凝露淡相暎
翠蓋霏煙輕不沈
遠香祗合當周愛
雅豔且應待謝吟
試把碧筩盃酒飮
伏炎於成未能侵

蘇聯地質學者 『카』氏의餘榮

싸베-트러시아가 世界에 자랑하는 有名한地質學者 카르핀스키-氏의 逝去는 蘇聯全土의 民衆의 哀惜해하는바이어니와 同氏의 葬禮는七月十七日 모스코바의 赤色廣場에서 盛大히擧行되고 遺骸는싸베-트革命의 功勞者들과가티 크레므링워-르에 安置되엿다 【同盟모스코바發】

(寫眞은右便의 스타-린氏와 모로토프氏)

讀者社交室

▲群山의동무 金容成 朴鳳玉 李大順 金德守君이여 在京時數次面하여도 答이업고 날마다情다웁던前날을생각하며 그리워하고잇네 社交室을처음利用하여동무들에게 못노니 보는대로소편지하여주기를바라네 京畿道開豊郡北面加土尾里 朴成模方 梁海星

▲滿洲國交通自動車取締規則及滿洲國鑛業令等을 購讀코자하오니 販賣店名과價格等을 貴紙를通하야 下敎하심을 切企하나이다 江界 李興俊

▲저는印刷職工입니다 朝鮮이나滿洲에게신 印工諸兄이여 서로親睦하기爲하야 印刷職工名鑑을發行하엿스면해서 提意하오니 同意하심은本欄이나小生에게具體案을提出하여주시옵소서 氏名、原籍、住所、勤務印刷所工場名 現職別가든것을 記載해서로돈두고보며 互相扶助햇스면합니다 諸兄高見을기다리 滿洲國奉天春曾文社 陳權植

▲求婚 二十五歲된女子인데初婚은失敗하고 至今재혼하려고저합니다 本人은 中學卒業했읍니다 相對者는一定한職業者二十九歲로三十歲以上되는者 有意하신분은本社社交室로通知하시오 (京城 一女性)

▲東京에게시는李淸淳氏와李明錫氏의住所아시는분이게시면 左記住所로나 또는本紙社交室로通하여 알려주시면매우感謝하겟습니다 滿洲國寧安縣牡丹江金鉛街 朝日工藝社 時鎭

新刊紹介

▲更生 九月號 發行所 廣島縣絲崎町日本赤十字社 廣島支部絲崎療養所內 更生社 振替大阪七七五三一番 定價十五錢

▲基督敎報 第七十二號(週刊)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二一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朝鮮競馬 創刊號 昭和十一年秋季特輯 發行所 京城府南山町一丁目一六 朝鮮競馬社 定價七十錢 送料四錢

連載野談 (二六) 布袋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畵

(不許轉載上演)

마룰캐든총각 (二)●

대저 고구려、신라、백제、세나라는 비록 임검이 다르고、강토가 다르고、백성이 다르나 그핏줄기는 다가튼 혈통이다。

그럼으로 그 언어를 비롯하야 풍속이 거지반 갓고 습관이 거지반 가튼것은 물론 나라의 경계로 말할지라도 그각갑게 닷은것이 마치 널판자와널판자를 맛부처 노흔것가티 겨우 실낫가튼 사이로 난위어잇섯다。

그러나 나라가 다르니만큼 혹시는 감정의 충돌。혹시는 리해의 득실로 말미암아 서로다툴집이 생기엇다 풀리고 풀리엇다 또다시 닷툴집이 생기기 쉬운것이 마련 가량한 가정의 내외싸홈과 가티 자젓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원체 말이 갓고 나라의 경계가 착 달너 부튼까닭에 누가 죽을 수어서먹고 누가 밥을 지어서 먹는것 까지라도 알수잇슬만큼、피차 조코 그른것의 소문을 빨리듣고 또는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뜻하는 속까지 서로 업는 알게 되는 까닭이엇다。

그런데 또한 고구려와 백제 두나라에

『천하절색!。천하절색!。신라의 선화(善花) 공주는 이 천하에 둘도업는 천하절색!』

이라는 소문이 크게 떠돌앗다 이소문은 정치(政治)에 관계된소문도 아니오 강토(疆土)에 관계된 소문도 아니오 재정(財政)에 관계된 소문도 아니라 고구려든지 백제든지 신라에 대하야 나라와 나라의 관계로써 말성이 생긴다든가 다룰질이 생길일은업는 소문이엿다。

그러나 선화공주가 천하절색이라는 그소문은 우선 신라는물론、고구려나 백제의 남자로서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그 소문만큼 애가 키이고 마음이 켕기는 소문이 업는듯 하얏다。

그래서 그세나라중、어느나라이든지 왕자나 왕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아。나라는 비록 다룰망정 나는왕자。선화공주는 왕녀。다가튼 왕족으로서 배필되는것이 틀릴것이 업는것。』

하며 그왕자왕손은 왕족이된것을 미더가지고 선화공주를 욕심내는 사람이 만코 사대부(士大夫)의 자손이된 사람은

『아아。공주나 옹주를 사려부자손에게로 시집보내는것(降嫁)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한전례。나라는 비록 다르다할지라도 나는 당당한 사대부의 자손。그러커니 선화공주의부마가 되지못할것이 업는것。』

하며 그사대부의 자손은 귀족이된것을 미끼 선화공주를 욕심내는 사람도 만하얏다。

그뿐아니라 백성의 자손중에서도 역시 선화공주를 은근히 길우워하는 사람이 적지아니하얏스나 감히 그런 과한맘은보이지 아니하얏다。

이럿듯 선화공주의 그 아름다움을 욕심내는 남자들의 그 뜨거운 생각은 공경(公卿)의구별도 업고 귀천의 차별도 업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다가티 욕심을 내엿다。

그러나 그들중에는 아조까지 누구나 신라궁중에 대하야

『내가 선화공주를 밧들어 백년해로하기를 원하오。』

하고 들론을 하야본 사람은하나도 업섯다。

그럼으로 그들이 선화공주를 욕심내고 사랑하는것은 결국헛욕심에 지내지못하고 짝사랑에 지내지 못하얏다。

이에 그들은 그 헛욕심과、짝사랑의 라는 를길을 익이지 못하야

『아아。선화공주는 우리의 애물로 태어난 공주!。』

하며 선화공주를 욕심내고 홀노 사랑하든 사람들은 제각각 부지런시 선화공주를 원망하는 말이 만햇다。

그러나 선화공주는 자긔의어엽븐것을 누가 욕심내고 잇스며 누가 사랑하고 잇스며 누가 원망하고 잇는것을 꿈에도 생각한 일이업섯다。

오직 깁고깁흔 구중궁궐안에서 마치 고이고이。조심조심아 길니우는 수선화(水仙花)와 가티 부왕(父王)과 모후(母后)의 지극하신 사랑의 양육을바터 깨끗하고 조촐하게 잘아날뿐이엿다。

『아아。천하절색!。천하절색! 선화공주는 진실로 천하에짝이업는 절색!。』

하며 선화공주가 잘알수록 더 어엽부고 어진편으로만 잘아나간다는 소문이 시시때때로 세상에 널니널니 퍼저나가기만하얏다。

絢爛! 淸秋의 藝園

開陳할 舊樂의 豪華版

八道名唱들을 總網羅하야 完成된 唱劇史上의 新機軸

歌劇 "春香傳"

朝鮮聲樂研究會에서 舊樂의새로운길을 開拓하고자 斷然 唱劇의 形式을버리고 歌劇의새로운形式을取하야 爲先 本社學藝部의 後援아래 歌劇春香傳을 今月 二十三日부터 公演하기로 되얏다함은 本報에 이미 報道한바와같거니와 當研에서는 今番의 이 機會야말로 舊樂의 消長盛衰를決定하는 커다란 契機라고 생각하야서 三四個月以來物質的이나 精神的으로 全力을 기우리는 것은 勿論이요 全會員中으로부터 가장 適役의 人物들을 뽑아서 盡善盡美의 結果를 期約하고 있는中이다。

本來 朝鮮에는 歌劇이 없고 一種 唱調의 形式으로써 春香傳以外 沈淸傳 興甫傳等이 傳來하야 오든터로 近來에 이르러 그唱調를 劇化한 것이 그 所謂 唱劇이로되 唱劇에는 出演者는 出演者대로의科白이 잇고 또 唱하는 사람은 그사람대로의唱이 잇서그 것은 劇도 아니요 唱도 아니요 서로서로 時間도 맛지안코 內容도 틀리든만큼 오히려 各自의 效果를 減小시키든 것인데 今番 歌劇春香傳은 따로이 唱하는 사람을 내세우지 안코 直接 出演者그들로 하야금 唱케 하는 것이니 歐米의 發達된 歌劇으로 比하는것보담은 中國의 唱戲로比하는 것이 더 適切할것 이다。何如든 朝鮮의 舊樂이 바야흐로 衰退의 一路를 밟버가는 中에 聲研의 이러한 試驗은 決코 그 意義를 적게 보지못한다。舊樂 關係者들은 勿論이요 其他社會各方面으로부터도 相當한 注目을 이끌고 잇다。더구나 年來로 春香傳이 唱劇、新劇、乃至映畵로 우리의 아페 無數히 나타낫섯지만은 或은 古俗에어그러지고 或은 古習에 버서나서 讀者의 고웃음을 사오든것이러니 이 歌劇春香傳은 丁貞烈氏의 演出아래 服色으로부터 行動擧止에 이르기까지 全部 그當時의 風俗習慣을고대로 지키는것은 勿論이어니와 言辭間에도 되도록 現代의 새로운말을 避하기로 되얏다。그뿐더러 지금을 부르는 소리는 그사연도 만히變改되고 唱法도 고치어진것으로서 그中에는 改善된곳도 잇지만은 改惡되곳도 엇지안한지라 그여시 그러한點을 考慮하야 녯날의 소리를 만히 살리기에 努力하는터라다。이런點으로만 보더라도 今番의歌劇 春香傳은 確實히 從來의 것과는 天壤의 差異를 가지고잇다。古代의 朝鮮을 보려고 하는사람、우리父祖의 生活을 알려고 하는사람、참다운 ……을 들은즉 …… 春香傳을 보려고 하는사람、그러한사람에게는 今番의 이歌劇 春香傳이 실로 千載의 好機를 이루는것이다。

名優適役!

朴綠珠의『春香이』와 金昌龍의『新官使道』

指揮	李東伯
演出	宋萬甲
	丁貞烈
脚色	金容承
—配役—	
新官使道	金昌龍
李道令	丁南希
春香	朴綠珠
春香母	林小香
房子	吳太石
香丹	金任壽
雲峰	李東伯
任實	丁貞烈
谷城	宋萬甲
獄使丁	沈相健
級唱	徐相九
執事	丁元燮
首刑吏	韓成俊
使令	金世俊
通引	曹南秀
執杖使令	鄭點伊
行首妓	姜太弘
妓生	曹鶯鵑
妓生	李桂仙
妓生	李玉花
妓生	成壽香
	外數十名

"이런計畫은 생전처음"

羽調청으로逸傳하는 理事長 李東伯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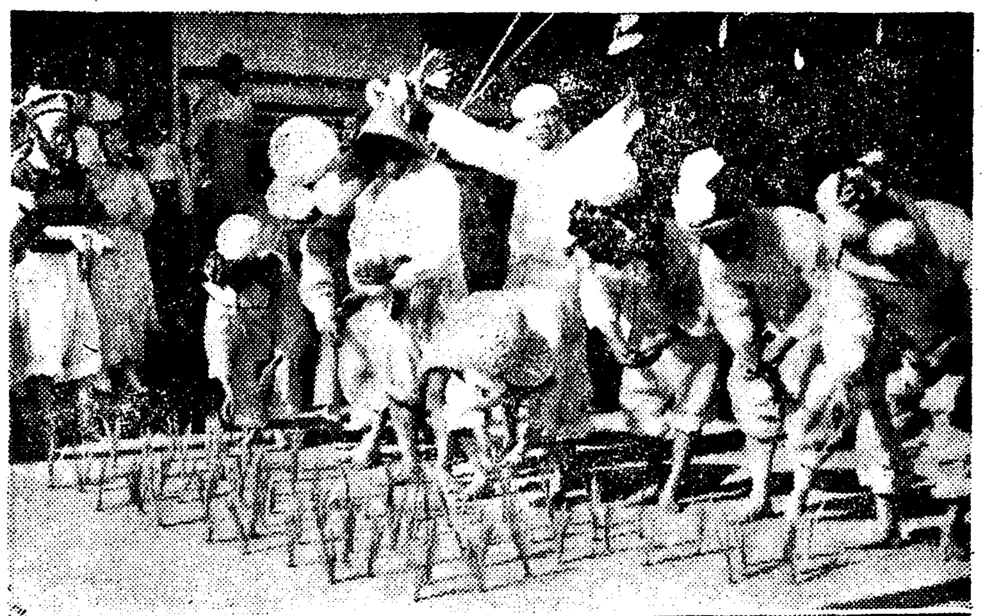
歌劇春香傳의 上演을 앞두고 그實際에 中心活躍하는 朝鮮聲樂研究會를 차저가서 同會理事長 李東伯氏를 맛낫고 그의 感想을 들은즉

소리나 하든 사람은 모도 다 세상떠나고 …… 와나는 일흔도 넘엇스니까 더 말할것이 업지오。젊은사람들이 이 계자를 잇기는 잇습니다만 어듸 수효가몃 됩니까? 이대케 가다가는 이 조흔 우리소리도 고만 업서지나 봅니다。소리를 부르는 사람도 귀하지만은 듯는줄을 아는사람조차업스니까요。그것을 어떠케 살려볼까 하고 백방으로 애를써 가는중이 겨오 이모냥입니다。그저 여러분들이잘 못하는것을 일깨 주고 가르키어 주서야만 되겟습니다。이번의가극춘향전은 우리회의 전력을 다드리어 해 보겟습니다。그래서 세상에서들 조타고만 해주시면 심청전도 그려케 맨들고 흥보전도 그려케 맨들고 배비장전 옹고집전가튼 것도 그려케 맨들어 보겟습니다。(寫眞은李東伯氏)

映畵界揷話

깨여진自尊心

날마다 婦人參觀者가 몰려드는워ー너社撮映所에서는「딕·뽀ー엘」이 婦人參觀者의 人氣를 獨占하고잇는데「뽀ー엘」은「女子들때문에 일을할수업다」고 호소하고 悲鳴을 부르지즈면서 自己자랑을 이저버리지안코잇다。어느날 女子參觀者 한사람에게 宣傳部員이「뽀ー엘을보러 오셧겟지요」하고 人事를하니까 女子는「그만두어요 뽀ー엘보다 더훌륭한사람을 보앗스니…」하고그냥도라가버리엿다。社內에서 第一人氣者라고 하고잇던「뽀ー엘」은 입이 빼죽해지면서「훌륭한 사나히는 대체누구일가」한다고



寫眞說明

唱劇의新面目을 보기위하야 너른마당에서 連日猛練習을 하는聲樂研究會員一同 (上)農夫歌의一場面、中密部隊外에엑스트라數十名이登場하야 五色燦爛한 榮華鏡을이룬모양 (下)春香과 李道令의離別하는場面、朴綠珠와 新進名唱丁南希의名唱비、듯고보는者 반드시울고야말것이다。

재形式으로박귄 『春香傳』의구비

洋歌劇·레뷰ー와好對照ー

【第一幕】

第一場 李道令이 冊房에서글읽다가 심심하든차에 淸明이나되려고 房子를불러서 南原의景致조흔곳을뭇는다。

第二場 李道令 廣寒樓에이르러서 左右山을 둘러보며 풍경에 취히 기뻐다가마침 건너편방향에 주는그늘시이로 마치 仙女의 땅에 나부기든지 오락가락하는 春香의 그네뛰는것을보고서 그만 넘을일흘드시 바라보다가 그것이 本邑退妓月梅의딸成春香이라는 것을 듯고 房子에게春香을 불러오라고한다。

【第二幕】

李道令 春香을 면對해서만 보고서도 풀린듯 그리운 마음을 놓는지 못해서 밤에 다시 房子를 불너가지고 燈籠을 둘러 안세우고 春香집을 찾젓다。李道令과 春香이 서로 對面하게되엿다。비록 수집고 어색키는하나 서로 끄을니고 미더운 생각에 마음내 百年을 言約햇다。

【第三幕】

第一場 그러나 好事多魔라 運命의 젓은 손은 이 두젊은이의 타는듯한 사랑의情炎을 暴風雨와가치 휩쓰러꺼지게하려하엿스니 채 新情이 洽足하기도전에 그아버지가 內職으로 드러가게되엿슴으로 李道令은 허는수업시 春香을떼치고 서울로 올라가지아니하면 안되게되엿스나 칼로 끈울래야 끈울수업는 이두사람의사이가 五里亭에서 서로 떠려지는 애끗는場面。이光景을 읊흔글귀에 가로되『含淚眼看含淚眼、斷腸人送斷腸人』이라고하엿다。

第二場 春香傳一篇의 가장劇的 核心이되는同時에 한떨기 애련한 꽃송이와같흔 春香에게 모진바람을 시러오는 新官使道의 到任。

【第四幕】

李道令이 科擧하야 暗行御使가되여가지고 巡歷次로 南原을向해 내려오는途中에 어느 모숨기하는 들판에서 農夫들에게 探密로 南原府使의 行政을 探問하는때。

【第五幕】

第一場 이무슨奇緣이며 어무슨 悲運일까? 獄中의 春香이 夢寐에 그리든 李道令을 만나지 못하고 목숨이 風前의 灯火와가치 됨에 此生의 未練恨을 後生에나 풀려보려고 最後의血書로 遺紙의 遺言을 써서 房子식혀 서울로 보낼든바 道中에서 御使가 房子를만나 그편지를 띄러보니 아모리 貞烈과가튼 丈夫이고 또 아모리 雪寃이 目前에 잇다고 하드래도 그 마듸마듸에 친寃恨은 또한 보는사람으로 피눈물을 자아내게 하는것이엿다。

第二場 그러나 暗行御使인지라 그行色이 漂泊되가바 弊袍破冠으로 春香집에 이르니 春香母 七星壇을 모으고 하나님께 빌기를 春香이를 살니기위해서는 도련님이 金剛監司나 暗行御使가 되여지이다고 至誠으로 비는것이엿다。그러나 李道令의 꼬락서니를 보고서 絶望과 失心으로 구리혀 厚顏無恥하여 이場面은 劇的 要素인「사스펜스」의 極致에 이르는것이다。

【第六幕】

第一場 劇은 漸漸 大終局의 絶頂으로 올나가 李道令이 獄中의 春香을만나는데 오히려 이場面은 무거운 沈默의 重壓이잇슬따름이다。

第二場 大破局。草木은 떨고 飛鳥도 떠러지는 殺風景。暗行御史出道소리가 山川을울니며 不義의 惡虐은慘澹錦이되고 死門에 드러섯든 春香의일흥은 永遠히 살게되엿다

라듸오

十四日 (月曜)

◇午後六時(東)하ー모닉獨奏와管絃樂 紹介ー드라스의追憶…코오스作曲外四 하ー모닉獨奏 篠野靜江 管絃樂알메리아管絃樂團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卅分 經濟解說 李
◇同七時卅分 常識講座 〃鳳凰이야기〃 總督府事務官 金秉旭
◇同八時 首陽歌 一、詩調 二、首陽歌 崔蓮香 金泰鍾
◇同八時一五分 (東)첼로獨奏 舞歌……빼하作曲 피아노伴奏 市山信二 市山光子
◇同八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무지개진三角形』一場
—配役— 英順…金德遣 昶順…(그의어머니)金映玉 어머니…金福■ 春今…元晶鎭 貞愛…張喜玉 下女…蔡順葉 演出 李雲谷 效果 李鐘一 劇藝術研究會
◇同九時一五分 大笒獨奏 一、淸樂자진한닙 二、길군樂 金永根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하ー모닉獨奏 篠野靜江
◇同六時二五分 講演 菊池謙讓
◇同七時三〇分 童謠 田知花信量
◇同八時 (大)詩朗吟 京山千榮子
◇同八時一五分 (東)첼로獨奏 京山信二
◇同八時三〇分 (東)常盤津 常盤津政太夫
◇同九時 (東)시네마오페렛타 出演淺草追文字

十五日 (火曜)

◇午後零時五分 하와이안기타ー音樂 一、들리·알로하……킹作曲 二、하하미네 三、푸아포카히……카아이作曲 四、루레舞曲……카아이作曲 五、아름다운리弄……릴리오코弄作曲 六、하와이의노래 七、정은風舞曲……콜라이作曲 八、우랄라이크·노알라이크 九、칼리나風舞曲……카아이作曲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夏服處理와保管』 李英乙順 金聖俊
◇同六時 兒童劇 『꽁지없는잠자리』 一景 —配役— 金星哲作 고초쟁이…金福禮 파랑쟁이…徐點敎 노랑쟁이…吳福念 詩은쟁이…金蒼童 少年甲…方孝君 同乙…白駿基 其他쟁이多數 京城山新童友會 指揮 金泰晳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講演 『國運의進展과司法保護事業』 司法大臣 林賴三郎 譯講 總督府通譯官 西村眞太郎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 『金剛山과楊蓬來』 李秉岐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白鷗야 二、唱劇調 沈淸歌中 〃泛彼中流〃 丁貞烈 鼓手 韓成俊
◇同八時四〇分 (東)피아노獨奏 一、遺詩曲 A포레長調作品四十七番…쇼팡作曲 二、라칼파넬라…리스트作曲 小田淸江
◇同八時五五分 古談 『鼎中演說』 李愛永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速成獨語講座 (卄四) 登張信一郎
◇同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守屋東
◇午後零時五分 (大)로ー기이야기
◇同二時 常識講座 尾崎史郎
◇同六時 (大)幼兒에게맥이야기
◇同六、二五 滿洲國承認記念日 關屋五十二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八時 (東)라듸오드라마 友田恭助外
◇同八時四〇分 (東)피아노獨奏 小田雲江
◇同九時五分 (熊)不知火물자는것 熊本縣宇土郡松合海岸서中繼

健康と活力を生むーこの一杯!!
맛이 조화 누구나 조화합니다
▲胃腸이나뿐분에
▲身體衰弱한분에
▲食慾不振인분에
▲産前産後인분에
▲病中病後인분에
▲疲勞倦怠인분에
▲榮養不良인분에
▲虛弱體質인분에
どりこのㄴ 綜合糖質의 約七十%의葡萄糖果糖及 아미노酸을 主成分으로하야 胃腸과身體의衰弱할때이라도 容易히吸收되어 活動力의源泉이됩니다 따라서 身體의諸臟器의疲勞에는한잔으로도効果를 確實히 알程度의 高速度의滋養効果가 잇고 다시 日常愛飮에依하여서는 胃腸을整齊하고 食欲을增進식히며 全身의榮養을 조케하야 體力을充實히하므로 누구에게나 溫潤한健康美와 旺盛한活動力을 享受할수가잇습니다。特히 上記한과가튼분에게는 絶好의滋養料로서 專門家도 極力推奬하고잇습니다。
どりこの
全國有名藥店·食料品店にあります
發賣元 東京小石川 大日本雄辯會講談社商事部
—どりこの文獻申込次第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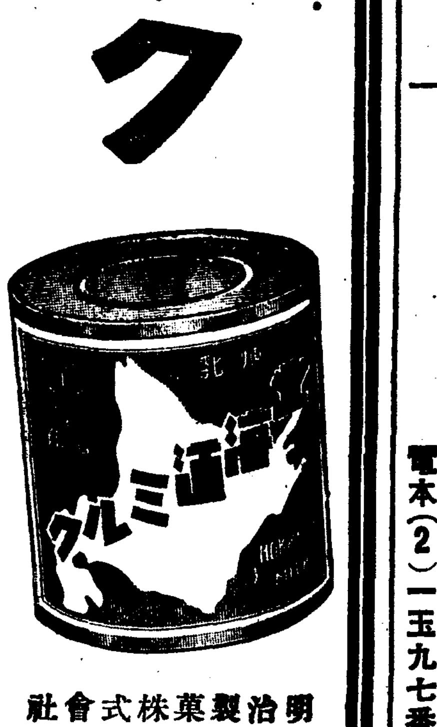
●模範的頭痛藥! 胃腸을안상한다 ノーシン● 노신
本社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銀河水 登錄商標 銀河水 고무신 京城府新設町一三七番地 世界護謨工業合資會社 社長 元胤洙 專務 金景鎭 長電話光③一八三七番 振替京城一七九〇四番

登錄商標 世界 世界 運動靴

痛科 라듸움科 京城婦人病院 醫局長 工藤武城 醫局長醫學博士松本泰治 醫局女醫 李敏信 電本②〇四八二·三八九三番·京城北米倉町九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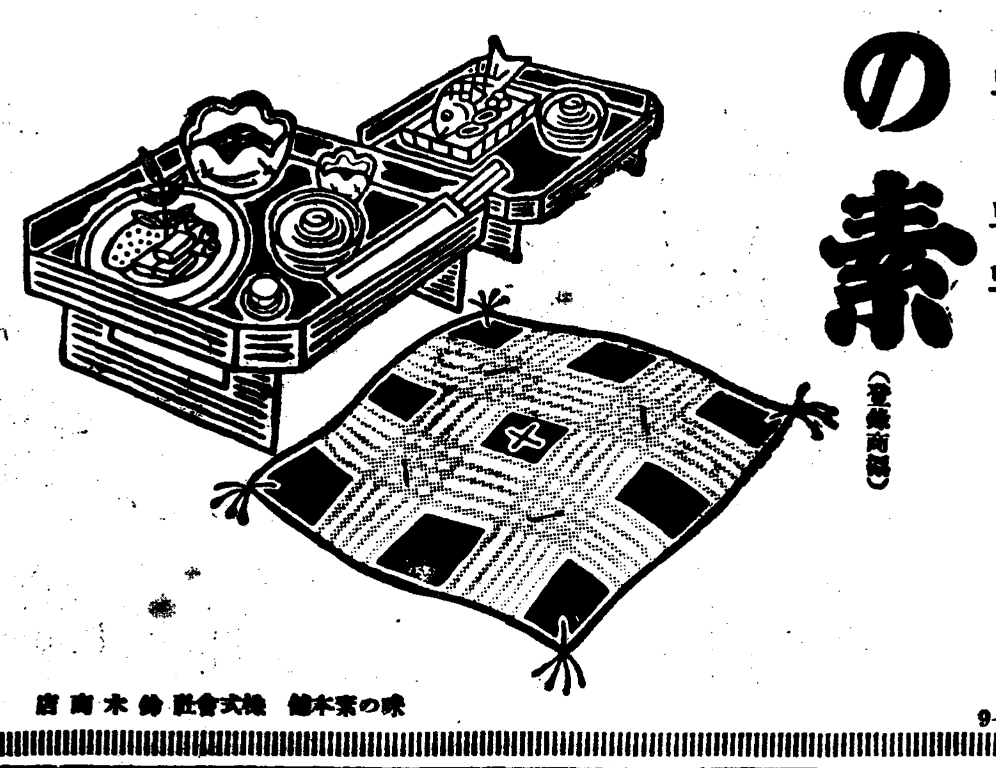
染料原料 信用 卸商 本位 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檢查 染料取扱店 大壯洋行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 (市場入口側) 振替京城 一二〇六八番



育兒에! 病弱兒에! 姙産婦에!
北海道ミルク
使用法簡便! 價格도低廉!
明治製菓株式會社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石福商店 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マツダランプ 마쯔다람푸
マツダ眞空管 마쯔다
두가지必備品
科學의極致新마쯔다람푸의出現은電力의經濟를計劃한다
精巧한技術을자랑하는마쯔다眞空管은淸朗의音色을잘持續한다
東京電氣株式會社 元製造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맛이조타고손님에게서稱讚을밧고料理의自恰도할수잇슬것이다……
味の素本舖 株式會社鈴木商店
9—K

EM、AG、M 九月十三日早日特別大封切 超特作全發聲日本版! 脫線僧正 라무 亍! 로리드피 氏監督作品! 에드·모드리 엔氏主演 剋拔한 스토리와 名優의 熱演으로 滿天下를 定評이 잇는 興味! 封切! 超名篇 부르드 (F) 興收이 잇는 名篇 매리온 포스 로이 단 提供日本語解說版! E、A 사리스부리 大佐製作 猛果敢한 熊人種의 죽리! 死別한 男便의 遺骨를 가싣고 美人이 婦人에 가 蛇의 大手의 虎와 黑豹! 의 닙고 虎와 大 것 問題中 이 古未踏 의 秘境! 蛇! 叢林의 決鬪! 地 大都 千里 映畵 社 特作 時代劇 北時雨戀の旅笠 大作 龍 三 監督 近衛 十四 郞 水島 道太郎 共演 黃金町 優美館 電光 三九五
九月十三日早日三日間 大公開 每日 晝夜三回興行 正午十時早日 六時까지 續映 夜間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아ー 빈·시ー글 ー 피철氏協同監督 傑作名篇 헤렌·가해ー 정과 랜돌프·스콧 主演 洞窟의女王 … 松竹蒲田 特作品 秋山耕作氏監督 時代名篇 濡れた捕繩 坂東好太郎 飯塚敏子 主演 漫畵多數紹介 銀路五丁目 電光一○三番 第一劇場
九日ヨリ五日間 晝夜三回入替ナシ メトロ特作 マーラ・ロ・タスロンプ パ社ジャックオキー ジョ・ペナー 南海のペーガン POL作品 古川綠波 藤山一郎 宇留木浩 女學生大行進 メトロ作 太洋の寵兒 メトロ作天然色映畵 飛び出す映畵 POL映畵と高級洋畵 モダン東京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若草映畵劇場 電本五一三五四番

鎭南浦特產苹果 販賣統制劃策

一般은其趨移를注目

仲介業者와栽培業者에大影響

【鎭南浦】 평안남도의특산물(特産)인 진남포평과(苹果)의 판매를 통제(統制)할 목적으로 진남포산업조합(産業組合)에서는 수년전부터 조합원을 대대적으로 모집하는일방 앙양리에 통제에 대한 각방면책을 연구하여오든 중 지난해에 진남포상공회의소에서 산업조합이 주체가되여 일부과수업자를 매수하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판매통제에대한 구체안을 토의한결과 무엇보다도중개업자를 일소하여버릴방책이 필요하다고해서 평남도지사에게 중개업자를 취체하는도령을 발표하여달라는 진정서(陳情書)를제출하기로하는등 구체안이 섭립되엿슴으로 만일 이것이 실시되는날이면 일반중개업자는물론이려니와 과수원경영상 중대한 영향이미칠것이라고해서 수천과수업자들은 그추세를 매우주목하고 잇다는바 년산사백오십만관이나되는 진남포평과가 진남포경제계에도 막대한 영향이잇는 중대한문제이니만치 그결과여하가매우주목되는바라고한다

長湍의初秋蠶 거의全滅狀態

【長湍】 [illegible]군(長湍郡)이라면 전조선을 통하야 양잠[illegible]이라고 자랑할고장인대 지리학상 마로인하야 토습한 관계로 초추잠(初秋蠶)은가위전멸상태에 잇다하며 아프로의일기에 따라서는 중추잠까지라도 여망이 업다하야 양잠가들은수미를 펴지못한다고한다

◆崔東爕氏(北栗小作人組合理事) 新任人事次本社北栗支局來訪
◆洪龍燮(北栗小作人組合長)同上
◆崔鎭河氏(前鍾城公立普通學校[illegible])[illegible]
◆許聖根氏(前鍾城公立普通學校訓導)[illegible]轉勤人事次同上

京咸對抗拳鬪戰

十五日咸興에서試合

本社咸興支局後援

【咸興】 조선권투계(拳鬪)의그린아!경성의 박용만(朴容萬)선수와 함흥이나흔 명선수 박은섭(朴殷燮)씨와의 대항전아세아권투구락부(亞細亞拳鬪俱樂部)주최의 경함대항권투시합은 금십오일 오후세시부터 본사함흥지국의 후원아래 동명극장에서개최하기로 되엿다 출장선수가모다 경향간에서 그이름이 뛰여난 명선수일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권투시합을 구경하려고 기다리고 잇든현상이라 당일의성황은 미리부터 예기되는바이며 겸하야 실비로제하고남은것은 전부 수해구제금으로 보내겟다고하니 더욱대성황을 이룰것이며 실로권투계의 공전의 호화판이라고아니할수업다고 한다

갸륵한韓老婆

【咸興】 남조선수해 리재민에게대한 동정금품은 류보화가티 련일 몰밀듯 모여오는데 구일에도 본보지국에는 갸륵한 긔탁이 두건이나잇섯다 유락정 이백삼십구번지 한삼희(韓三姬)라는로파는 자긔가입고잇든 옷여덟벌과 현금 일원오십이전을 보내달라고왓는데 그현금은 지금으로부터 륙년전에 세상을떠난족하 고종인(高宗寅)이의 저금통장에서 차즌돈을 두엇다가 그와가티 가저온 눈물의돈이라고하며 역시 동일 황금정일정목 오십번지 김인화(金仁和)씨도의류삼점을 긔탁하엿다

第二人道橋架設 悲觀은아직無用

旱害救濟費는再調決定

石內務部長歸任談

【平壤】 한해구제대책에대한국고보조를 어드려고 총독부에갓든 백석(白石)내무부장은 십이일귀임하엿는데 이번의 요구액은도로 [illegible] 사업오십만원 동척수리조합등 오십만원 합계 백만원으로 종래의례를 본다면 요구액의일할이 보조될뿐이엇스므로 이번도그정도가 아닌가상상되나 한해는조사하면 할수록 피해는만허지는터이어서 다시 정확한 조사를하여 요구할터이라한다 그리구 진남포상수도문제는총독부에서 중요히 인식하므로 락관해도조흔제이인도교(第二人道橋)문제도 비관할것까지 업다 보통강 개수문제는 상당의피해가 큰만큼 다소곤난한모양이며 평양역의 조차장(操車場)신설문제도 다소 난관이 업지안타고 이야기엿다

음악회의 입장권 매고는 오십원에일으러 경비를제한 잉여금 전부는 본사를 통하야재지로 송달케되엿다한다

鮮于梨前校長 送別會大盛況

【平壤】 조선녀성교육계의 대은인 숭의녀학교(崇義女學校)전교장 선우리(鮮于梨)녀사의 송별식은 구일오후여섯시부터 화신(和信)식당에서 부내 유지 륙십여명의 출석한가운데에서 김동원(金東元)씨사회로 열리어섯다 주인측을 대표하여 한근조(韓根祖)씨의 [illegible]

江界六人殺害事件 被告、犯行을否認

"매"에못익여虛僞告白을主張

—再檢證키로決定—

【新義州】 쿠보=작년십이월육일 평북강계운내 강계농림(農林)학교장 하야(河野)씨의 일가족여섯명을 살해한후 범행을감추려고 불까지노흔 살인강도급방화(殺人强盜放火)사건 제일회공판은 드디어 지난십일일 정오부터 신의주지방법원제일호법정에서 국지(菊池)재판장주심 대삼(大森)검사관여로 개정되엿는데 피고인

本籍 山東省萊州府蓬萊縣 住所 江界邑內高承基方 中國人 土工 王世德(三七)
本籍、住所 同上 同 李善正(三七)
本籍 安東縣六道溝 住所 江界郡前川面長興洞 料理業 姜希堯(三三)

등 세명은 대삼검사의 사실심리에 들어가 범행에대한 사실을 처음부터 경찰의 고문으로 돌리고 끗까지 범행사실을부인함으로 재검증을 하기로 결정하고 오후세시 폐정하엿다한다

牧丹江市를目標 淸津商圈의進出

貿易斡旋所를開設

【淸津】 청진항의 『히타ー랜드』로 가장 중요한 무역권(貿易圈)을 형성하고잇는 동만일대(東滿一帶)는 그경제적대동맥(經濟的大動脈)인 도가선(圖佳線)공사의 진섭에 따라 목단강(牡丹江)을 중심으로 장족적 발전을하고잇서서 청진상공회의소(淸津商工會議所)에서는 상권의확립을 위하야 목단강시에 무역알선소(貿易斡旋所)를 설치하고상업과 상업소개일선을하고잇다는바 도가선 연선의 동만일대는 벌서 청진상권의 독점하는바되야 아프로 청진을중심으로하는 동만진출이 가장유망하리라한다

地方人事

◆高橋勝一氏(往文津金融組合理事)新任人事次 本報往文津支局來訪
◆李學承氏(前新里公立普通學校訓導)忠內公立普通學校轉勤人事次同上
◆丸山道興氏(前全羅南道警察部警務課人事係主任)는長城警察署長榮轉人事次本報長城支局來訪
◆丁京鎬氏(農業學校敎師)新任人事次本報黑橋支局來訪
◆沈敎鍵氏(江華郡庶務主任)楊州郡廳榮轉人事次本報江華支局來訪
◆林濟根氏(白川公普訓導)新任人事次本報白川支局來訪
◆金聖恩氏(昌昌醫院長)西門通에開業人事次本社平壤支局來訪
◆金正和氏(水玉齒科醫院長)水玉里에開業人事次同上

神戶在留同胞의 水害救濟赤誠

【神戶】 전고미증유의 대풍수재로 말미암아 남부조선을 비롯하야 중부조선에 이르기까지 수십만의 생령이 방황의식주를잃코 곤두에 방황하고잇는현상에 동정하야 신호재류동포들도 여유잇는생활은 못하나 동포를구하자는 『표어』아래 단체로 흑은개인으로 학생으로 확송단송하는 동정금품이 본지국에서는 매분망중이라한다

同情音樂盛況

本報鏡城支局主催

【鏡城】 마의홍수에 의하야 가장참혹을 다입고 이제 귀아선상에서 울고잇는 백만 리재동포를 다소라도 구제하기 위한 본보 경성지국주최의 동정음악회는 예정한바와가티 지난 오일오후 팔시정각에 당지공회당에서 개최하얏는데 입추의 여지업시 칠백관중의 초만원을 일우어 운중 리재동포를의연하는 구슬픈 독창을비롯하야 주최자의 개회사의 순서를따러 이십여종목의 묘긔는 만장에흥분과우슴 바다를 일우엇다 공연 음악회를위하야다지 각관계학교및기관단체에서도다가려 구제의길로라는 표어로 후원을 하야 구제의거화를 일우게하엿다는데 당야관중속으로부터 들어온것이 나도나도하고 동정 의연금이 나중 현금이 사십원에 달하얏고

咸興
第一回 全朝鮮씨름大會
◇時日 九月十九、二十兩日間
◇場所 咸興女子普校前廣場
◇主催 咸興體育會
◇後援 朝鮮日報咸興支局

愛慾의彼岸 【100】

李光洙 作　金康穆 畵

그러나 주상의 얼굴에 흐희와 애원으로 가득 찬 표정을 볼 때에, 또 온정리서 이 새벽에 사십리ㅅ길이나 저를 보려고 온것을 생각할 때에,

『딸아오지말아요!』

하고 야멸친 소리를 찌를수는 업섯다. 그래서 주상이가 제겨레 가까이 올 때까지 혜련은 말업시 가만히 서잇섯다.

주상은 혜련이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는것을 보고 잠깐 주춤하엿다가,

『혜련씨, 나는 혜련씨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바뎌주시겟습니까. 혜련씨에게 합당치못한 내인줄알면서도 나로는 이 감정을 누를수가 업습니다. 나는 인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수는 업서요. 내가 사랑하는이는 영원히 혜련씨뿐입니다. 이 말을 하라고, 그리고 무슨 말슴 한 마듸를 혜련씨 입에서 들으라고 새벽길 사십리를 왓서요』

하고는 어른께 꾸지람을 기다리는 아이모양으로 고개를 숙여버린다.

혜련도 고개를 숙엿다. 주상의, 저기피혼에서 나오는 간절한 말에는 듯는 사람을 내려누르는 어떤 힘이 잇슴을 혜련은 깨달은것이엇다. 게다가 주상은 혜련의 마음ㅅ속에 오래 사모하던 그림자가 아니냐. 혜련은 가슴이 아프도록 무거워짐을 깨달앗다.

혜련은 한참ㅅ동안 말이 업다가, 고개를 들어서 주상의 흥분되어서 빗나는 눈을 바라보면서,

『고맙습니다. 그러신줄 제가 알아요.』

하고 한 마듸를 하고는 또쉬이고, 한 마듸를 하고는 또 쉬이면서,

『그러치만, 그러치만』

하고 참아 말이 나오지아니하다가,

『그러치만, 저는 마음에 허락한이가 따로 잇서요』

하고는 또 고개를 숙이고 말앗다.

『마음에 허락한이』라는, 일생에처음 입에담아보는 말이 제 귀에 도로 울려올때에 혜련은 정신이 아득하여짐을 깨달앗다. 내어지 이런 큰 소리를 하게되엇는고 하고 나치 후꾼거렷다. 그러나 제 속에 먹은 뜻을 처음으로 발표할기회가 이 귀회라고 생각한것이엇다.

『네? 마음에 허락하신 이?』

하고 주상은 놀랏다.

혜련은 아모 말이 업섯다.

『언제부터?』

하고 주상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또 물엇다.

혜련은 여전히 잠잠하엿다.

『그이가 누구시야요?』

주상의 음성은 떨렷다. 주상은 마치 제 몸을 겨눌수가 업는것 가탓다. 팽하고 몽동이로 머리를 어더마즌 모양으로 귀가 잉잉하는듯 하엿다.

『그런 말슴은 뭇어주시지마세요』

하고 혜련은 겨오 고개를 들엇다.

『그것이 정말이십니까. 나를 끌리라고 하시는 말슴이 아니고 정말이십니까. 네?』

하는 주상의 얼굴의 근육은 절룩거렷다.

『네』

하고 혜련은 고개까지 한번 끄덕하여서 제 대답이 올타는 다짐을 두엇다.

『더 엿줍지안켓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갈피를 잡을수가 업서요. 내가 무어인지 내가 장차 어떠케 되는것인지, 나는 알수가 업서요. 천지가 왼통 뒤죽박죽이 된것 갓타요. 내부서진 마음을 도로 주서모하보기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겟습니다. 나는 먼저 가요.』

하는 말을 던지고는 주상은 다름박질 하는 모양으로 초막을 향한 길로 걸엇다. 걸음이 빠르기는 빠르나 허둥허둥하는것이 혜련에게는 보엿다.

혜련은 주상의 뒤를 물끄럼히 바라보고 서 잇섯다. 그리고 는 슬픈 생각이 북바처올랏다. 주상이가 불상하엿다. 저 사람은 아버지모양으로 또는박선생모양으로 세상에 향용잇는 사내들 모양으로 그러케 제몸만 위하는 거짓된사람, 못미들 사람은 아닌것 가탓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던 표정, 하던 말만은 터럭끗만한 거짓도 업는 참과 정성이라고 생각하엿다. 혜련은 인생의 참된장면 하나를 어더본것가탓다.

주상은 고개 [illegible] 올라서서 잠깐 혜련이가 서는 양을 돌아보고는 숨어저버리고 말엇다.

九月一日부터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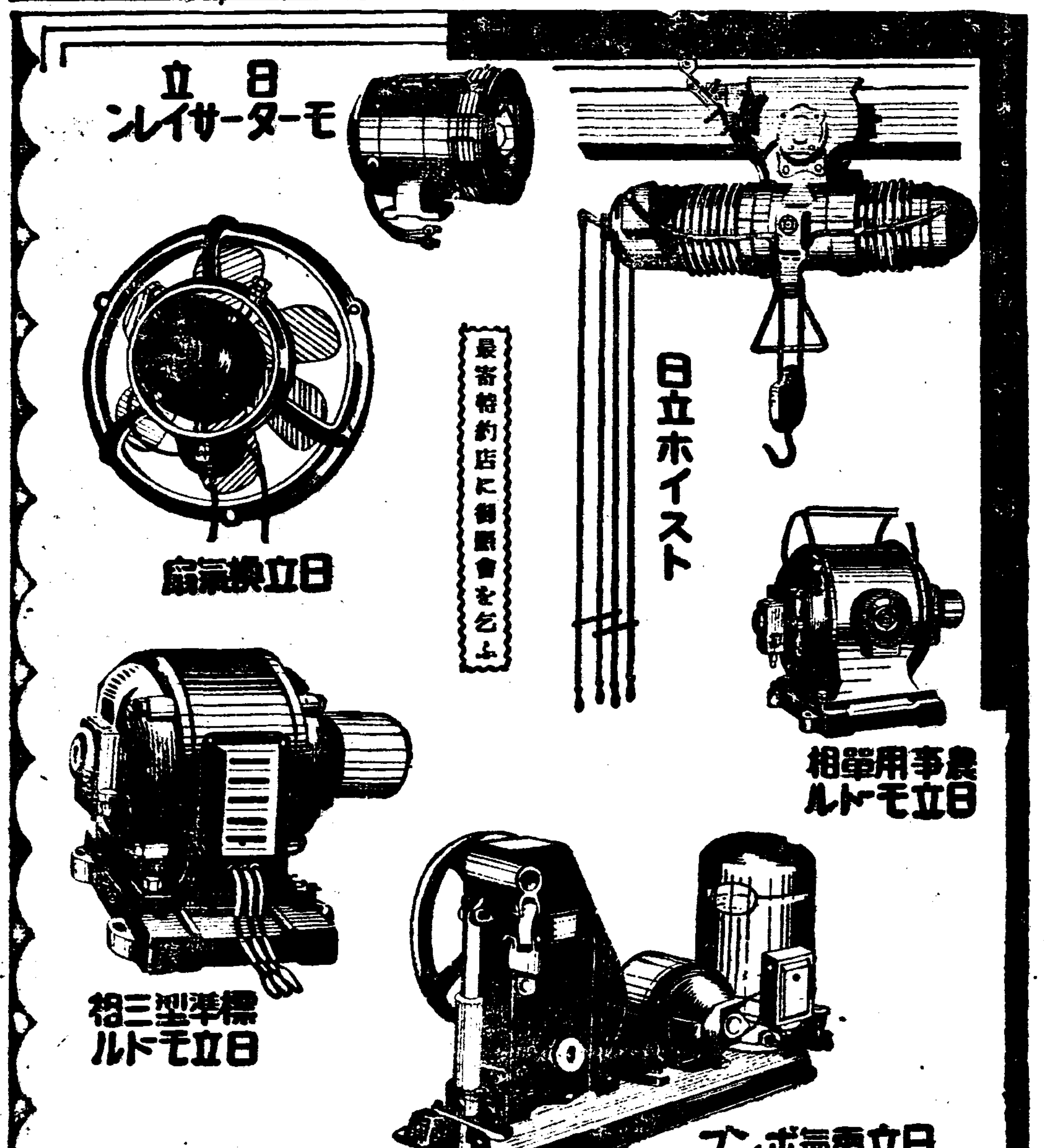
鮮滿絹織株式會社

今回、鮮滿絹織株式會社를 設立하옵고 丁子屋絹織部業務一切를 承繼하와 內容의 充實은勿論 業務에 一層努力하겟삽기 倍前愛護하야주시옵기 仰望합니다

營業品目
本絹織物
交織物
入絹織物
毛織物
綿織物

鮮滿絹織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小林源六
常務取締役 鈴木文次郎
支配人 黃淸河
京城府長谷川町六五【丁子屋舊絹織部】

陽氣업서 恨歎하시는 분이여!
貴下를 爲하야 補精腎氣强壯에 神奇神秘한 天惠的靈効를 가진
樺太廳官營捕獲
眞品海狗腎 을販賣함
本品은 北洋寒帶樺太의 無人島産을 樺太廳에서 官營으로 捕獲하야 同廳水産物檢査所에서 嚴正檢査證明한 世界的高貴의 藥品이라 一服하시면 그神効함을 能히 料量하실것이외다! 求服을 願하시는분은 說明書請求하시면 無料進呈함
發賣元 釜山府草梁町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長 二二一九番 振替釜山 七九二二番



日立製作所
東京・丸之內
大阪市西區土佐堀通一ノ一　福岡市博多片土居町四一　大連市山縣通りニ東拓ビル
京城府古市町四三中央ビル　名古屋市中區大津町一ノ一〇　札幌市南二條西十三丁目三一九

朝鮮日報社安岳支局
電話 二八番

當る十四日第一回提供
●●次週十八日より●●
▲阿部九州男主演
幽靈一座
▲ハヤブサ・ヒデト主演
無敵亂鬪王 第二篇
▲コロムビア日本版
社長は奥様が好き
最底入場料・階下席 拾錢均一
大都映畫超特作時代劇
原作 內海義人 監督 白井戰太郎
口演 東家樂遊
浪曲トーキー
小松嵐
海江田譲二・佐久間妙子・主演
大都映畫特作連續大活劇
監督 隼秀人
無敵亂鬪王 第一篇
鳥人ハヤブサ・ヒデト主演
五十鈴桂子・大河百百代・助演
米國スター映畫特作日本語版
フレッド・ニューメーヤー監督
ロイドの亂鬪王
ハロルド・ロイド主演
抱腹絶倒・終始お笑ひに滿ちた大喜活劇
大都映畫特約封切館
永樂町
電話三三三〇
中央館

九月十四日封切
每日三回（午前十時半 午後一時半）
◇廿世紀폭스特作映畫
플스케맺、로쩰하드손
사사로메로、와텐、하이마主演
人情私情볼것업다
새로운恐怖와戰慄에차인熱狂的快作
◇廿世紀폭스特作映畫
天才 쪠위서스少女主演
루이스와이러監督
귀여운오데이
엄마를차저서三千里、마치童話의 이야기와가티、눈물나는불상한少女의신세！
◆新興키네마超特作
監督 田中重雄
伏見信子、松平晃 主演
初戀日記
原作 國色 知月餘
─（次週十九日封切）─
（名物作）끈다ー크、大空의驚異、富り屋カンタ、無法地獄、마스루카、國際圓舞曲、生活의道、近代脫線處女
團成社

映畫上映時間表
九月九日より九月十五日まで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夏川大二郎主演	金鎭	11、30	3、40	6、50
ロバート・ドーナツト主演	三十九夜	…………	3、11	8、00
高杉早苗 川崎弘子主演	入婿合戰	12、46	4、55	9、32
第一回目は三十九夜上映致しません
……入場料金 40錢 60錢……
浪花館

黃金町
電話光三九五
北時雨戀の旅笠
近衛十四郎 水島道太郎 共演
[illegible]
優美館

[illegible]
脫線僧正
[illegible]
濡れた捕繩
坂東好太郎 飯塚敏子 主演
漫畫多數紹介
第一劇場

[illegible]
洞窟의女王
[illegible]
九月十三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別莊과奇緣 全一幕
桃花劇場

九月十二日부터公演
[illegible]
魔都의天使 全一幕
史劇 佛國寺 全二幕
喜劇 危機一髮 一幕
[illegible]
東洋劇場

九月十二日낫부터 晝夜二回上演
靑春座公演
[illegible]
「靑春頌歌」三幕四場
[illegible]

米穀自治管理法 施行令閣議承認
●九月二十日부터施行

米穀自治管理法施行令은 十一日閣議에 承認되어 九月二十日부터 施行하게 되엇는데 이제 그 主要한 條文을 보면 다음과 갓다.

米穀自治管理法施行令案

第一、米穀統制組合又는 米穀商統制組合又는 그 事業을 行할 團體又는 米穀自治管理法 第四條第一項 第五號의 倉庫證券(自治管理倉庫證券)을 發行하려고하는때는 地方長官의 認可를 受할일

第二、第一의 認可를 受한 米穀統制組合 또는 그 事業을 行하는 團體又는 米穀商統制組合 또는 그 事業을 行하는 團體는 寄託者의 請求에 依하야 寄託物의 自治管理倉庫證券을 交付할 [illegible] 商法第三百八十三條의 二第二項及第三百八十三條의三의 規定은 自治管理倉庫證券에 이것을 準用함

第四、自治管理倉庫證券은 記名式으로 할 自治管理倉庫證券의 所持人은 證券發行者의 承諾이 업스면 이것을 讓渡又는 質入함을 不得함 前項의 承諾한 發行者는 證券에 其旨를 記載함을 要함

第七、地方長官은 米穀統制組合으로서 그 區域內에서 米穀統制組合의 組合員資格이 잇는 者의 二分之一以上을 그 組合員으로 하는 것에 限하야 米穀自治管理法 第二十八條第一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得함

前項의 許可는 地方의 事情及 그 組合의 事業狀況을 斟酌하야 할 [illegible] 市町村에서 米穀統制組合又는 그 事業을 行하는 團體가 잇는 境遇에 限하야 [illegible]

第八、第七의 許可를 受한 米穀統制組合은 地方長官의 許可를 受치안코 그 事業을 休止又는 廢止함을 不得함 [illegible]

第十、米穀統制組合의 事業을 行하는 團體의 그 事業에 關한 左에 揭한 事項은 總會又는 總代會의 決議를 經할일 (一)收支豫算 (二)經費의 分賦收入方法 (三)事業報告及收支決算 (四)借入金(一時借入)

前項의 許可는 [illegible] 會를 除外함 (五)米穀自治管理法第三十七條에서 準用하는 同法第八條의 同意

前項第一號 第二號及 第四號에 揭하는 事項의 決議는 그 事業을 行하는 團體의 [illegible] 地方長官의 認可를 受하지안 으면 그 效力이 生하지안흠

第十一、米穀統制組合의 事業을 行하는 團體의 그 事業에 關한 收入支出은 他事業에 區分하야 此를 經理함일

第十四、朝鮮及臺灣에서 米穀을 取扱하는 事業組合又는 團體가 米穀統制組合의 事業을 行하는 境遇에는 第七第一項第二項及第八乃至第十三의 規定에 準하야 定하는 때 依함일

第十五、地方長官은 米穀統制組合聯合會로서 그 所屬하는 米穀統制組合의 區域內에서 米穀統制組合又는 組合이 그區域內의 米穀統制組合의 二分之一을 以上에 達하는것에 限하야 米穀自治管理法 第二十八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할

前項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하는때는 地方長官은 前項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農林大臣의 認可를 受함을 要함 第三十八條의 規定에 依한 許可를 受할 第七條第二項의 規定은 前二項의 境遇에 이것을 準用함일

第十九、米穀自治管理法 第四十一條第一項의 米穀豫想收穫高은 昭年日本內地、朝鮮及臺灣의 米穀生産高의 第一期推定高十一月一日의 米穀現在高、過去의 消費狀況을 參酌하고 認定한 米穀年度에 對하야 [illegible] 此를 定할일

第二十、地方米穀統制組合聯合會는 統制協議會가 업슬때는 統制하기에 適當한 米穀統制組合又는 聯合會又는 그 事業을 行하는 團體에 對하야 直接統制할 일

第二十一、米穀統制組合 或은 그 事業을 行하는 團體又는 米穀商統制組合 或은 그 事業을 行하는 團體는 米穀自治管理法第四十七條의 規定에 있어서 準用할 五十六條第二項에 [illegible] 管理倉庫證券을 受하야 寄託하는 米穀을 寄託하고 再保管케 할일을 得함

再保管의 目的인 米穀에 對하야 受託한 倉庫證券이 잇는 境遇에는 當該倉庫證券을 發行한者에 이것을 返還하고 後가 아니면 自治管理倉庫證券의 發行을 함을 不得함

——(계속)——

今年水稻作況 一割二三分減
但,調査方法이 改正된때문에 數字는 昨年과 同程度

朝鮮米의 今年度收穫은 開花成熟期에 再次의 風水害 七月以降連續日照不足으로 一般으로 發育이 遲延되고잇는데 그後各地情報를 綜合하면 今年度의 減收는 例年의 豫想으로보면 大體 一割二三分가량前後의 減收가아닐가한다 即 洪水禍에依한 被害地는 浸水地帶는 모다 三分作以下의 大打擊이나 그反面 全朝鮮的으로 水稻는 天水畓의 作況이 順調이어서 그耕作面積으로해 膨脹되어잇다 慶南北 全南等의 觀察報告를 볼지라도 天水畓의 順調를 傳하는 狀態임으로 이러한 天候가 繼續되면 例年의 例로보아 一割二三分의 減收라고 보인다 今年은 朝鮮米生産調査方法의 劃期的 改正이 잇서 從前의 所謂舍算的의 것이 表面化되는니만치 來第一回 收穫豫想은 相當히 順調를 傳한 前年度의 實收에 갓가운 或은 이를 若干 凌駕하는 數字를 보여주지안흘가한다

江原道農作被害 九百萬圓突破!

江原道의 風水禍에 依한 農業被害中 江原道의 調査는 대다히 遲延되든바 十四日 그槪計가 判明되엇다 이에 依하면

◆耕地被害 田畓의 流失四千九百七十町步 埋沒七千七百四町步로 그被害五百九萬四千六百三圓

◆作物被害 被害面積은 田一萬二千二百十町步 畓一萬四千六百七十四町步로 그農作被害額은 四百一萬四千九百七十二圓 合計九百十萬九千五百七十五圓으로 合計被害九百萬圓을 突破하엿다 暴者 判明된 全南北、慶南北의 被害額五千百十九萬二千百二十二圓으로 이에 江原道를 合算하면 六千四十萬二千六百九十七圓에 達한다

九月一日殘存米
—千五百七十萬餘石—
比前年一割一分減

【農林省發表】昭和十一年九月一日現在 日本內地의 米穀現在高는 總數量 千五百七十萬九千四百五石으로 이것을 前年同期의 千七百五十九萬六千二百七十三石에 比하면 百八十八萬六千八百六十八石 即約一割一分의 減少를 示하엿다 産地別을 示하면如左하다

(單位石△印減)

産地別	昭和十一年度	比十年度比較增減
日本內地米	一四、三五四、九〇一	△一、六三三、三三六
朝鮮米	一四七、七五一	△一〇九、〇九三
臺灣米	六九〇、三四一	一三一、〇八九
外國米	三六、四六八	三五、二四〇

米穀自管案 施行協議
農務課長會議

米穀自治管理法施行에 關한 各道農務課長會議는 十四日부터 三日間豫定으로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矢島農林局長統裁下에 開會하야 時岡 大野穀務課長의 訓示가잇고 다음에 法令案을 說明及 協議事項을 協議하얏는바 協議事項은 如左하다

◇協議事項

一、米穀統制組合을 設立할 府郡島의 決定에 關한件

一、米穀統制組合의 時期 其他 準備手續에 關한件

一、米穀統制組合의 役員及 職員의 選任方針

一、米穀統制組合의 倉庫建設及 倉庫配當方法

取引所改善은 國策이아니다
改革案議會提出與否未決
小川商相心境披瀝

取引所制度 調査會의 小委員會案을 둘러싸고 關係事業者의 要望이 잇는데 商工省에서 該當理事會案을 至急하게 決定하고 小委員會 決意하는 特別委員會의 意見이 一致되면 總會는 十一日의 總會를 開催하엿는데 그結果 十一日의 特別委員會도 別로 本論에 드러가지못하고 午前中에 뭇마치엇다 다음回는 約二週間後에 再開하기로되엇는데 이것은 所管大臣인 小川商相이 咨申案을 受入하엿는바 다시 充分한 檢討를 하고잇다 나는 今日까지 아직 小委員會의 成案에 對하야 는 賛意를 표할만한 意見이 업다 그러나 그 案을 받더라도 하지못하겟다

取引所問題는 商工國策方面에 沒頭하여 왓다 取引所問題도 重大하기는 하나 이번 國策가운데 包含되지 안흔것은 事實이다 나는 來議會에 반드시 提出할는지 안할는지 決定하기까지 檢討할 餘裕를가지지못하엿다 그럼으로 이제 엇지하겟느냐하는 點에 對하야는 言明할수가 업다 要컨대 咨申案을 基礎로 한 것으로 小川商相은 十一日午後 다음과가티 率直하게 그 心境을 말하얏다 小委員會의 成案에 對하야 이번議會에서는 國策關係만하야도 法律案이 만히나올것이다 그境遇에 議會情勢等을 無視하고 咨申案을 提出하야도 問題될 點이 업는 것으로 보이지 안는다 그러나 결국은 當局의 考慮에 依한다

米價秋落深刻
一旬間에 近三圓暴落

朝鮮凶作에不拘코 日本內地米의 大豊作豫想으로 大阪地場 實勢의 實馬가 動搖가되어 崩落되기시작한 市勢는 十四日에至하야서는 無底底不知의 慘狀이 繼續되엇는바 即 仁川先限은 二日高値에 比하야 二圓六十八錢의 大慘落이엇고 各地正米도 모다 暴落되어 深刻한 秋落市勢이엇다

木浦 ㊅ 二六〇 三三〇 三〇低

期米의 低落幅

		十四日前場	二日最高值	比較
仁川	當	二六九〇	二七〇〇	[illegible]
	中	二六五〇	二八三〇	[illegible]
	先	二六三〇	二九〇〇	二六八低
大阪	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米의 低落幅

十四日의 各地正米는 前日에 比하야 木浦不變이外는 群山、京城、仁川各地共히 一圓八十錢暴落、大阪五十五錢低、釜山五十錢의 一齊低이엇스며 이제今月三日에 比하면 如左히 木浦의 二圓三十錢低를 비롯하야 京仁一圓九十錢低等이엇다

各地正米三等

		九月十四日	九月三日	比較
京城	㊀	二六八〇	二八七〇	一九〇低
仁川	㊀	二六八〇	二八七〇	一九〇低
釜山	㊂	二六九〇	二八一〇	一二〇低
大邱	㊂	二六一〇	二八四〇	二三〇低
群山	㊁	二六〇〇	二八六〇	二六〇低

白金市勢反落

天井不知이던 白金市勢는 過高의 反動으로 十四日은 京城市中市勢가 實二十七圓丁으로 二圓低 買二十二圓으로 一圓低이엇다

京城見本市好況

第八回京城商品見本市는 十三日부터 開催하얏는바 豫想外의 好成績으로 初日의 入場者千八十名 賣上高四十五萬六千五百五十一圓에 達하고 第二日도 早朝부터 入場者가 만흐며 取引도 旺盛하야 三日間의 賣上은 넉넉히 百萬圓을 突破하리라고 보인다 그런데 初日의 特等百圓의 場內選民(景品)當籤者는 左의 四名이다

特等 百圓 開城 三星帽子店 宣川 萬貨商會 元山 小野本店 任實 普信自轉車店

朝石本操業開始

朝鮮石油元山工場製品은 今月上旬부터 實出을 開始한結果 제품이 意外의 好評을 博하야 製品位가 良好함으로 買注가 殺到하야 各油모다 品을 비롯하야 各油모다 品에 쪼기고잇는形便임으로 드디어 풀스피ㅡ드로 本格的으로 操業하기로되엇다

東亞勸業事業引繼

「鮮滿拓殖」에서는 十四日부터 [illegible]

經濟界消息

○貨物連絡會議=日本內地、朝鮮滿洲鐵道貨物連絡會議는 二十一、二兩日 朝鮮、滿洲會議에서 日本內地、鮮滿洲會議는 二十三日 各히開催하게되엇다

○訂正=東洋工業會社專務取締役 [illegible] 役으로되엇다

取引停止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番地 朝鮮金鑛株式會社 專務取締役 功刀崇臣 ◀京城府永樂町 淺井中一 (九月十日)

取引所聯合會
咸興에서總會

全朝鮮取引所聯合會에서는 十九日부터 咸興에서 開催되는 米穀大會를 機會로 同所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米穀自治管理法의 趣旨周知徹底方法의 件

一、米穀自治管理法의 趣旨周知徹底方法의 件

一、米穀統制組合의 處理에 關한 定款準則

一、國庫補助金의 處理에 關한件

一、貯藏米穀의 保管에 關한 利用方法

나、米穀管理法이 發動치안는 一週間에 되하야 買收키로 決定한 東拓勸業公司의 事業務의 引繼를 行하기로되어 그러면 同社는 今年度의 移民은 行치안코 手許의 資金四百萬圓으로 殘當五圓의 比例로 約八萬町步의 耕地를 買入하게되엇다 이오 事務引繼는 此等管理者二十名을 引繼할 터이다

經濟寸鐵

○凶作에 米價低가 너무나 甚코나!

○米價는 限定이어서 暗誦에 對한 秋落市勢가 底止할줄을 모른다

○米穀自治管理法은 二十日부터 實施되는데 朝鮮서도 農務課長會議를 열고 協議가 분분 잘 의논하시오

○風水害는 陸地에만 止치안코 漁船에까지 總數의 五分一이 被害라니 水陸을 죄와는 災害가 얼마나 큰지 기막히는 노릇

○商品見本市 大盛況 京城商工協會도 이런것 主催좀 하시오 都賣商이 업서 못하오?

商況 【十四日】

株式 新高價로 續騰

前場先高後低 休日을지난 今前場은 東新의 東京、大阪突飛高이엇스나 步低로 百三十四圓丁에겨우 一圓三十錢高 寄付後 三圓十錢으로 三圓二十錢에 一息大引되고 大新七十一圓丁寄付、七十圓六十錢大引、日産八十二圓十錢으로 一圓七十錢 寄後三圓三十錢으로 三圓六十錢大引 朝新百七十四圓六十錢 寄後三圓二十錢으로 三圓四十錢大引 鐘取七十七圓九十錢 朝新三十三圓三十錢寄付 一圓八十錢大引 日産新二十九圓二十錢寄付 九圓丁大引 朝石三十五圓丁 拓新二十

後場好務 後場은 다시買進되어 東新百三十四圓五十錢에 올르고 鐘新百七十四圓丁 日産八十一圓八十錢、朝新三十三圓十錢이엇다

東新 一三四〇〇(寄) 一三四〇〇 一三四五〇 ...

新高價로續高
飛付買는警戒

東京東新 百三十五圓五十錢은 休日을지난 今前場에 東京東新 百三十五圓五十錢高 大阪東新 百二十五圓七十錢으로 二圓八十錢高의 二次夜放高이엇스나 反動이커서 夜放突飛高으로 一服이엇슴은 反彈할믐때 當地는 一圓二十錢高인 百三十圓丁에 對하야 奔騰하얏스나 反動이커서 夜放突飛高으로 警戒氣分이 濃厚하야 期待은 程度반 急騰하던 後因而三圓高에서 一息裡에 市勢後因而三圓高에서 終하야 잇는바 外見 相當한 反落을 期待하야 잇슬것으로 보인다

低價는 百二十圓三十錢에서 今前場高價는 百二十五圓二十錢高이엇는바 買方第二目標는 一〇、二六事件前價百六十圓回復을 期하고잇는듯하다

今後波瀾激甚

東新爆發後의 今後商狀에 對하야서는

一、諸國策이 具體的으로 決定되지 안흔것이 하나 도 업다

二、電力國策도 民間생각대로될것갓지 안타

三、取引所制度가 咨申이 延期되고 商相態度가 不明하여서 結局 投機抑壓은 難免이다

四、豫算問題는 아즉 엇도 보이지 안탓다

五、日中問題가 複雜하다 以上과가티 諸問題解決이 容易치 안흐니 아모리 大勢樂觀이래도 今後市勢의 波瀾은 클것이다

實物前場取引

【東京電話同盟】赤字公債賣出이 接近하야 實物은 三分半利債가 五錢乃至十五錢低로 賣行되고 一齊히 下押商狀이엇다 米貨債는 六分半七十錢 五分半三十錢低이고 佛貨債도 四十錢低이엇다

▲人造肥料 [illegible] ▲電氣化學新 [illegible] ▲日本電工 [illegible] ▲日本曹達新 [illegible] ▲라사工業 [illegible] ▲라사工業新 [illegible] ▲日滿아루미 [illegible] ▲朝鮮製練 [illegible] ▲昭和人造絹絲 [illegible] ▲東京人絹 [illegible] 에다마이新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取引高 [illegible] 枚)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一〇〇、八五 ▲二回四分一〇一、三五 ▲佛貨四分一九一、七五

▲甲五分一〇〇、九五 ▲第一第三五分一〇一、三五 ▲一回四分一〇二、四〇〇 ▲二回四分一〇二、三五 ▲佛貨四分半四一、一九七、八〇 ▲滿洲公債一〇〇、三〇 ▲米貨六分半四 [illegible]

期米 新低價로 續崩

前場續落 再昨後場 阪地卅四錢止와 共히 卅七圓九十五錢에 場을 止한 市勢는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值三十錢인 十八丁低로 七十七錢이 二十六圓十二錢인 十二丁反落을 爲하고 二十七圓 한後 二節九十錢으로 突高하엿스나모도리 氣味로 한 成高한 更伸하지못하고 阪地○七錢의反落과 相俟하야 四十五錢까지 瓦落하엿다가 阪地二十二錢으로反高止하야 結局 二十七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一息 後場은 二十七圓七十一錢에 一丁高로 한 二節에 六十錢에 떠러지고 七十九錢에 返하야 止場하엿다

아직도賣優勢
阪地卅圓目標?

朝鮮의 稻作은 一千五百萬石程度의 凶作豫想으로 買氣依然濃在한 模樣으로 地方來客은 自地의 製作을 唯一한 題材로하야 甲의 買方이 損退한後에는 乙의 買方이 또 出現하는 可謂新陳代謝的의 光景을 呈하나 그러나 日本內地의 米作이 無類의 大豊作으로 마치 大海를 決한과 如한 優勢한 賣物이 續出하야 今朝阪地는 三十圓大臺를 割破하고 形勢를 보임으로 當地는 單獨의 高價를 維持하기는 結局이고 固執하든 買方의 投物이 續出하기 始作하야 阪地보다도 오히려 軟化勢를 呈하야 阪仁의 鞘가 二百六十錢丁으로 擴大되엿다 그런데 阪地의 某某有力軟派는 十一限의 三十圓丁을 目標로 하고 賣叩不急하는 모양인데 此의 目標가 當을 目指하고잇는 模樣이다

朝取期米取組內容

◆買方 ◆賣方

	中	限		中	限
㊀	一四〇〇	㉕	一〇〇	지	三三〇〇
[illegible]					

仕手의縱橫觀
買方은總陷落

昨今阪仁兩地의 仕手關係는 從橫的으로보면 堂島市場은 本宮이로한 田中良은 依然而強하게 最後一刻까지 防戰하고잇스나 日本內地의 大豊作豫想에는 最後一刻까지 防戰하고잇스나 朝鮮的實物이 續出하야 孤城落日에 갈바를 알지못하는 朝鮮에 빠저잇스며 當地는 朝鮮의 凶作을 題材로하야 各地의 買物이 多하엿스나 朝鮮의 凶作은 日本內地의 豊作으로 말미암아 효과가 잇지 못하고 도리혀 買方의 投物이 續出하야 當用買物이 意外로만흐엇치는 今朝에 二十七圓四十錢臺까지 崩落하엿다 果然今後의 天候가 마치如何할 는지 二百二十日이 無事通過하는데 又復一落을 强하게 主張하는 軟派는 相當한 賣方의 買方이 高價에서 約三百丁이나 瓦落을 當한 後인만큼 어느 程度까지의 反動高가 잇을것으로 觀測하고잇다

仁川正米

今日財界 (十四日)

◆米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二六三〇	一八〇低
大阪期米 先限	二九五〇	一九〇低
仁川三等米 一石	二六八〇	一八〇低
京城一等白米百키로	三三〇〇	不變
正租(仁川)一等一斤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融 一分買 [illegible]

◆株

	今日止	比前日
朝鮮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大阪F.A.Q	[illegible]	[illegible]

各地正米

堂島當限解合

【大阪電話】堂島市場에서 群山側은 十二日後止 當限八千九百石의 米交涉의 結果 買方 西山 神戶의 松本間에 三十二圓九十一錢에 被解合이 成立하얏다

堂島前場賣買

◆賣方=神戶側 高畠側 地場筋 ◆買方=地場筋 地場筋、中東側 西山

京城急落

期米의 現物取引은 甚無이나 期米의 暴落으로 氣配는 急落이엇다 ㊂三等二九、八〇 四等二九、五〇 一等白米 三三、〇〇

仁川激落

新米氣分濃化로 買氣薄이더가 期米의 三限一齊暴落으로 人氣極度로 悲化하야 唱은六十錢의 急暴落을 告하얏다 ㊂三等二九、八〇 四等二九、五 〇 一等白米 三三、一〇

釜山慘落

期米暴落으로 人氣去益惡化하야 氣配更히 五十錢 慘落이오 低價狙한 當用買物이 意外로 만흐엇다 ㊂三等 三〇、八〇 四等三〇、五〇 一等白米 三三、七五

大邱暴落

期米의 底不知的 慘落으로 人氣는 逐日軟化되는 一方今日과 如한 一氣로 五十五錢의 暴落을 演하야 唱值이오 取引은 皆無이엇다 ㊂三等 三〇、一〇 四等二九、八〇 一等白米 三三、七五

群山崩落

奧地實物은 大體一巡이오 實物薄이나 日本內地入注가全혀 杜絶되어 慘憺한 期米의 暴落으로 人氣極度로 衰退되고 氣配一暴로 八十錢 急崩落을演하얏다 ㊂三等三〇、〇〇 四等二九、八〇 一等白米 三四、〇〇

株 六感

……東新도 百卅五圓臺를 까지뛰엇스니 원간하지 ▲大勢高라도 덤허노코 高價를 飛付할 망은 업것지 ▲强氣의 第二目標는 百五十圓、決코 無親한 소리가 아니지만 이대로 一氣擲上을 콱 뭣지는 마시오 ▲어듸까지던지 沈着하게 押目을 買함이 得當 ▲米豆部大活況에 不拘코 朝新은 머리가 무거움다 그러나 이것도 押目은 買物임

米

……九月一日現在 日本內地殘存米는 一千五百七十萬九千四百五石으로 昨年同期에 比하면 百八十八萬六千八百六十八石의 減少를 보이고 去八月一日現在에 比하면 四百七十一萬一千百四十石의 減少 ▲그러나 市勢에는 何等의 材料가 되지못하고 發表가 되어거나 말어거나 今年의 米作如何만을 材料로하야 賣戰하는 光景 ▲高價에서 一氣로 約三百丁이나 暴落되엇스나 買方도 이로부터 警戒自重할 時機

期米 東 趙後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米 仁川 東益合資商店 光皿

株式 金益證券 合資會社

仁川 福 米期 吉村取引店

株式 米期 玉 仁川米豆取引所 柳來恒取引店

金.銀.白金 德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234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元料送呈

木浦不變

期米暴落、各地崩落에不拘코 不作市勢不現狀想으로 强硬히버티어 氣配保合이엇다 取引皆無狀態이나마 ㊂三等二九、八〇 四等二九、五 〇 一等白米 三三、一〇

金融 十四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米 京城正米 十四日

[illegible]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京城綿糸布市勢 ◆商品 十四日 ◆京城綿布 ◆鯨油冲價 ◆鯨粕冲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十四日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現株 ◆實定代引日步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十四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阪期米 ◆大阪正米消費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

[illegible]

商品 十四日

◆大阪棉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外國綿糸 ◆시카고期米

[illegible]